

컨슈머인사이트

월간 국내·해외 여행 동향 보고

2024. 02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국내외 여행 생태계와 여행소비자 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첫째



현재의 국내외여행 소비자 행태를
월 단위로 추적 조사하여
여행 시장 상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코로나 이전(2019년)의 상황과
월 단위로 그 결과를 비교해
여행 시장의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셋째



현상 평가와 과거대비 자료 분석을 통해
다가올 변화의 방향과 크기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격변하는 여행 소비자 환경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적응과 예측을 도와
여행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국내·해외 여행 동향 요약

요약

국내외 여행의 ▲지난 1년간의 변화 ▲코로나 이전 대비 현 상황 ▲향후 전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국내 여행	해외 여행
현황 - 설 명절 연휴가 있었으나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전월 대비 3.7%p 하락한 63.3%로 '22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여행 평균 기간은 3.01일, 1인 당 총 경비는 22.4만원, 1일 당은 7.4만 원임. '휴식(20.8%)'과 '친지 만남(16.6%)' 목적은 증가하고, '식도락(13.8%)'은 하락함.	현황 2월 해외여행 경험률(지난 6개월내)은 전월대비 3.9%p 상승한 35.2%로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 해외여행의 평균 기간은 6.64일, 1인 당 총 경비 175.9만원, 1일 당 경비 26.5만원임. - 해외 여행 시장에서 '아시아' 지역 점유율이 82.3%로 증가해 최고치(TCI 105)를 기록함. '아시아' 증가세가 계속될 것임.
코로나 이전 대비 - 여행 기간의 TCI는 103, 1인 당 총 경비는 108, 1일당 경비는 104로, 코로나 이전과 유사하거나 상회함. - 숙소 선정 시 '숙박 비용(139)'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고, 접근성(64)은 감소함.	코로나 이전 대비 - 해외여행 기간의 TCI는 109로 길어졌고, 1인 당 총 경비(123)와 1일 당 경비(113) 모두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늘어남. '아시아' 지역 점유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136)', '필리핀(129)', '대만(123)'의 방문율이 크게 증가함.
전망 -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은 66.4%로 지난 '22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향후 여행 비용을 '더 쓸 것' 역시 지속 감소해, 국내여행 시장 위축이 예상됨. - 여행 활동과 의향에서 '식도락'의 감소가 뚜렷해 요식업의 위축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됨 ▶ '24년 2월 이달의 톱픽 : 삼해자는 긴축여행, 줄인 것 줄일 것 1위는 식비	전망 - 해외 여행 계획률은 '23년 11월 고점(49.4%)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당분간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 쏠림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해외여행 총비용(175.9만원)은 국내여행 총비용(22.4만 원)의 7.85배에 이르며, 국내여행 총비용은 해외여행 일 평균 비용(26.5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관광수지 적자의 증가가 우려됨.

	여행실태							여행 계획		
	여행 경험률	기간	1인 당 총비용	일 평균 비용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숙박	여행 계획률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국내여행	63.3% (지난 3개월)	3.01(일)	22.4(만원)	7.4(만원)	🏆 경상권 28.6%	🏆 휴식 20.8%	🏆 호텔 29.3%	66.4% (향후 3개월)	🏆 경상권 26.4%	🏆 자연경관 25.1%
TCI	97	103	108	104	102	108	117▲	101	93	93
해외여행	35.2% (지난 6개월)	6.64(일)	175.9(만원)	26.5(만원)	🏆 아시아 82.3%	-	-	46.9% (향후 6개월)	🏆 아시아 73.7%	-
TCI	85▽	109	123▲	113▲	105			84▽	103	

* TCI(Travel Corona Index 여행 코로나 지수)는 2024년 당월 결과값을 '코로나 발생 전년(19년) 동월 결과값'으로 나눈 수치임
: (2024년 2월 결과) / (2019년 2월 결과) * 100
** ▲ ▽ 는 TCI (여행 코로나 지수) 100 대비 ±10 이상인 수치임
*** 금월(24년 2월)부터 여행 기간은 '박'에서 '일로 전환함.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 해당 자료는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5년 8월 부터 매주 시행하고 있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기초로 함.

모집단

표본추출 틀

표본규모

표본추출 방법

자료수집 방법

표본의 구성(할당)

조사기간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 컨슈머인사이트 86만 온라인 비편향 패널(Invitation Based Panel)
- 매주 500명 (연간 누적 26,000명, 3개월 내 동일응답자 참여 불가)
- 성X연령 및 지역별 할당 후 무작위 추출
- Online/Mobile -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2월 전체		(2,000)	100.0
성별	남성	(1,017)	50.9
	여성	(983)	49.1
연령대	20대	(335)	16.7
	30대	(355)	17.8
	40대	(428)	21.4
	50대	(470)	23.5
	60대 이상	(412)	20.6
성BY 연령대	남성 20대	(176)	8.8
	남성 30대	(184)	9.2
	남성 40대	(216)	10.8
	남성 50대	(237)	11.9
	남성 60세 이상	(204)	10.2
	여성 20대	(159)	8.0
	여성 30대	(171)	8.6
	여성 40대	(212)	10.6
	여성 50대	(233)	11.6
	여성 60세 이상	(208)	10.4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결혼 여부	미혼	(664)	33.2
	기혼	(1,239)	62.0
	기타	(96)	4.8
가구 상황	미혼	(664)	33.2
	신혼기(자녀 없음)	(126)	6.3
	자녀 유아&성장 (막내 입학 전~초등생)	(332)	16.6
	자녀 성장(막내 중고생)	(157)	7.9
	자녀 성인(막내 대학)	(542)	27.1
	자녀 독립(막내 결혼)	(178)	8.9
가구 월소득 (모름 제외)	300만원 미만	(273)	14.6
	300~500만원 미만	(514)	27.5
	500~700만원 미만	(507)	27.2
	700만원 이상	(573)	30.7

- 매주 '월요일~일요일' 자료 수집 : 연중 무휴(연 52주)

[참고] 휴일 달력

I. 조사 개요

6 / 40

2024년 1월 (전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1	1 신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2024년 2월 (당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설날
11	12 대체 휴일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2

2024년 3월 (익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5	26	27	28	29	1 삼일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2023년 2월 (전년 동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2	3	4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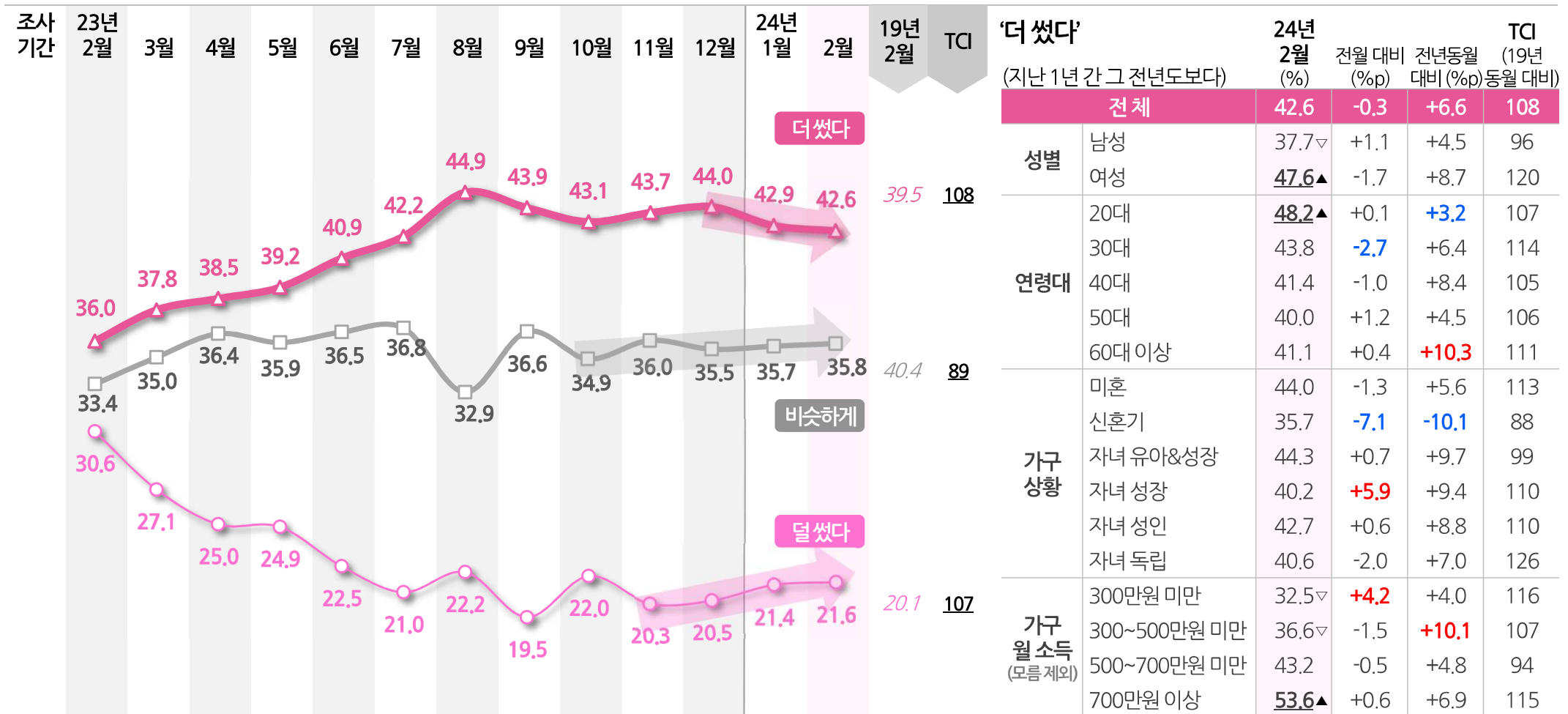
1. 여행비 지출 동향 (지난1년)

II-1. 국내여행 동향

8 / 40

- 여행비 지출 동향(지난 1년간 관광·여행비로 비용을 더 썼다·덜 썼다)은 지난 3~4개월간 ‘더 썼다’ 감소, ‘덜 썼다’ 증가 추세임.
- ‘더 썼다’와 ‘덜 썼다’의 TCI는 각각 108과 107로 높고, ‘비슷하게’(TCI 89)는 코로나 이전 보다 낮음.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20대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더 썼다’ 응답이 높음.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1,000명)

SQ1-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국내·해외 합하여 관광·여행비로 쓴 비용이 그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됩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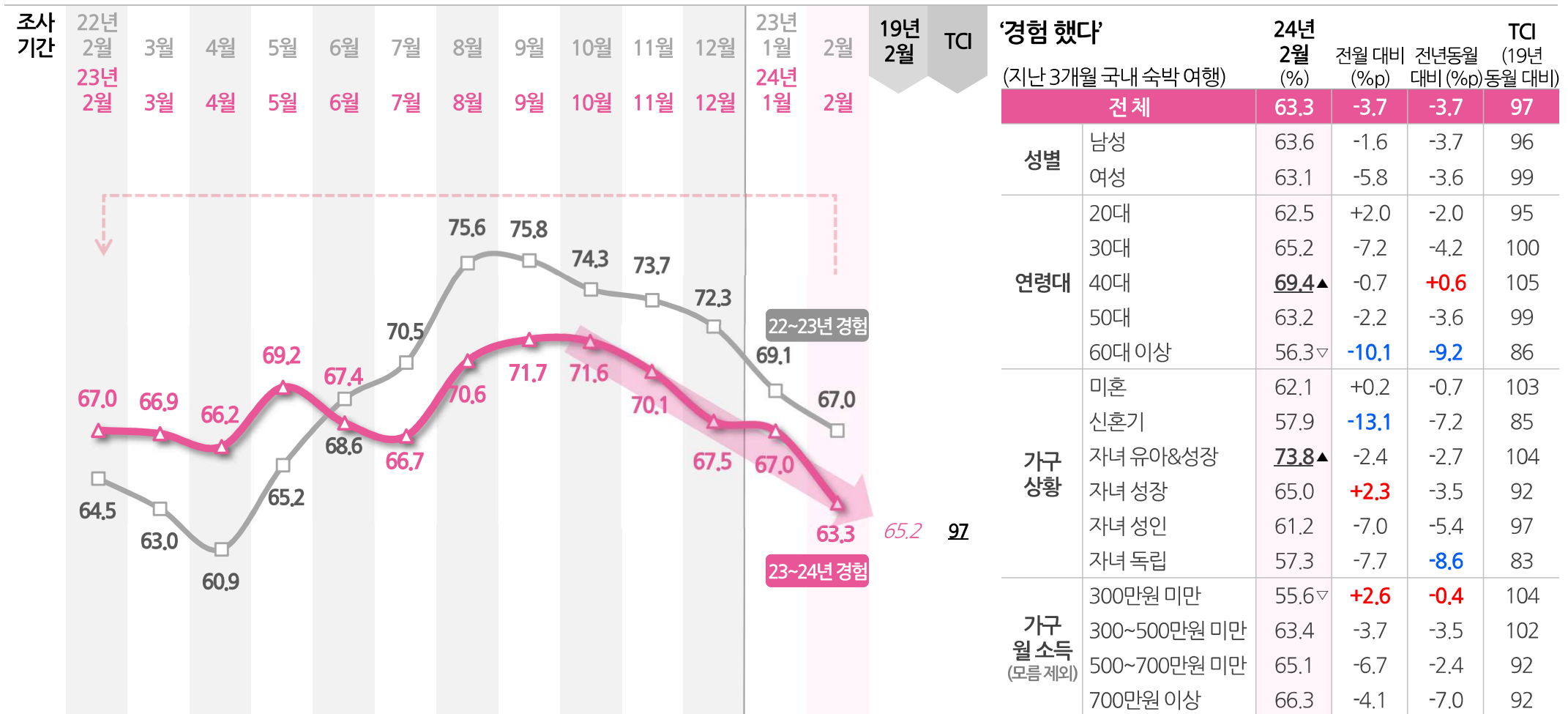
2.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 (지난 3개월)

II-1. 국내여행 동향

9/40

-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23년 9월 이후 5개월간 계속 하락해 63.3%를 기록함.
- 이는 '22년 5월 이후 최저치로 TCI는 97로 코로나 이전 동월(65.2%) 보다 낮으며, 해외여행 증가의 영향으로 보임.
- 인구특성별로는 △40대 △자녀 유아&성장기에서 상대적으로 경험률이 높음.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0-1. 귀하께서는 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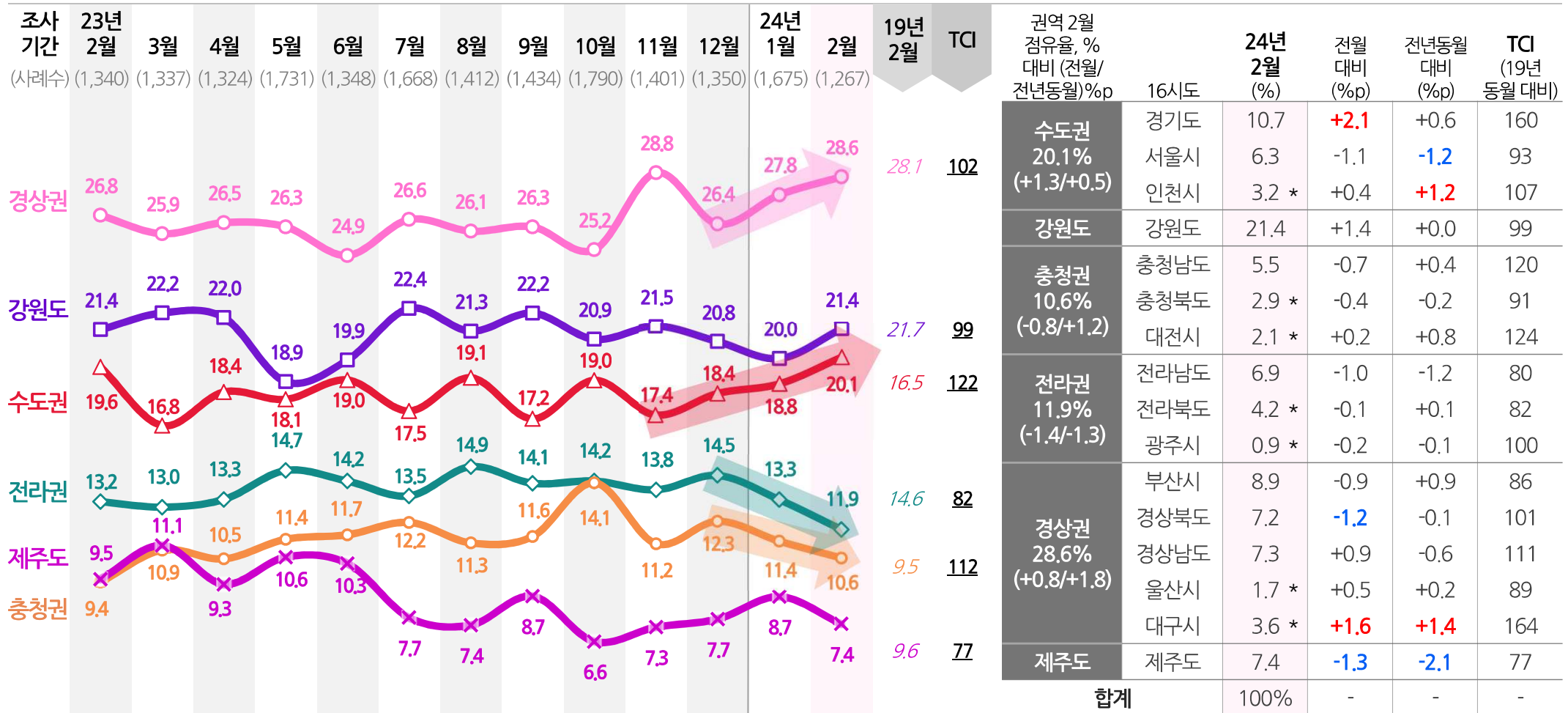
3. 국내 숙박여행 지역

II-1. 국내여행 동향

10/40

- 당월 숙박 여행지 점유율은 '경상권(28.6%)', '강원도(21.4%)', '수도권(20.1%)' 순임.
- 상위 3개 권역은 전월대비 모두 상승한 반면, 하위 3개 권역은 모두 감소하여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짐.
- TCI는 '수도권'이 122으로 가장 높고, '제주도'는 77로 가장 낮음.

[단위: %]



AA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 5% 이하 해석에 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국내 숙박여행 기간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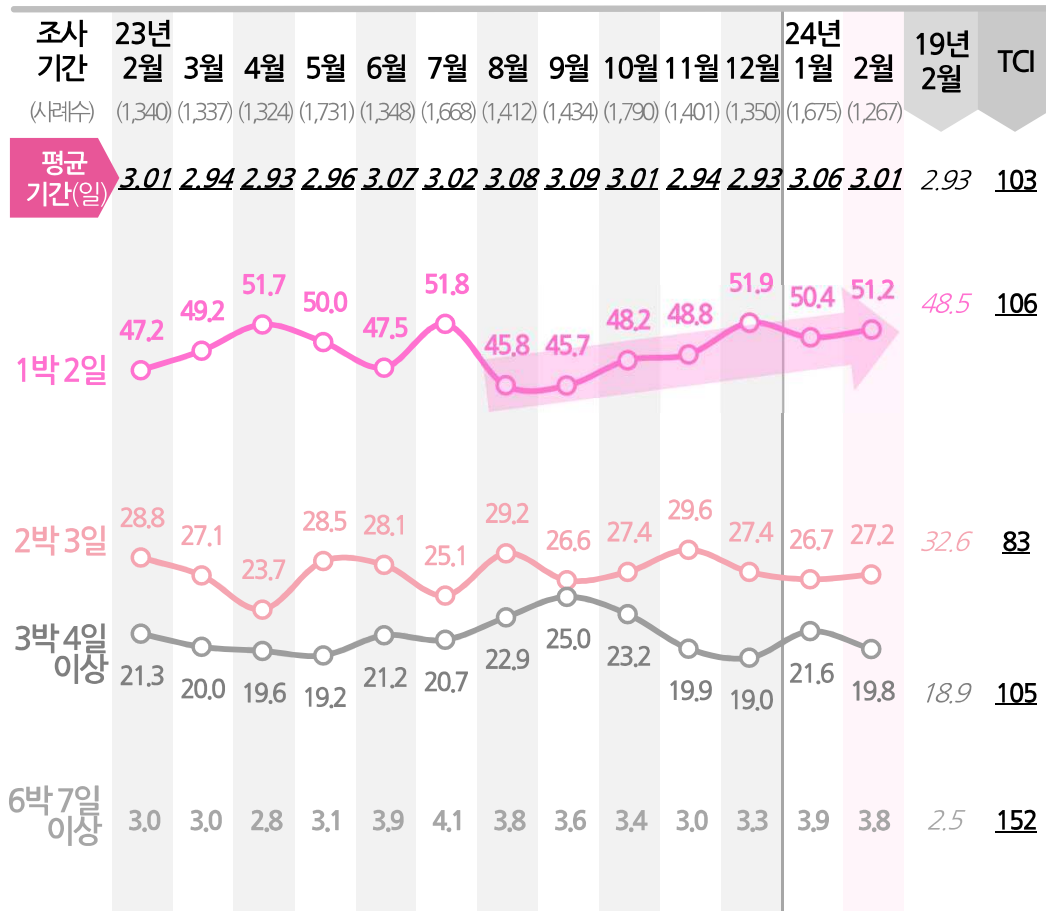
II-1. 국내여행 동향

11/40

- 평균 여행 기간은 3.01일이며, '1박2일(51.2%)' 여행이 '23년 8월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세에 있음.
- 1인당 총 경비와 1일당 경비는 각각 평균 22.4만원, 7.4만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감.
-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여행 비용은 감소세이며, 초긴축 여행의 증가로 여행/관광 관련 산업의 위축이 예상됨.

여행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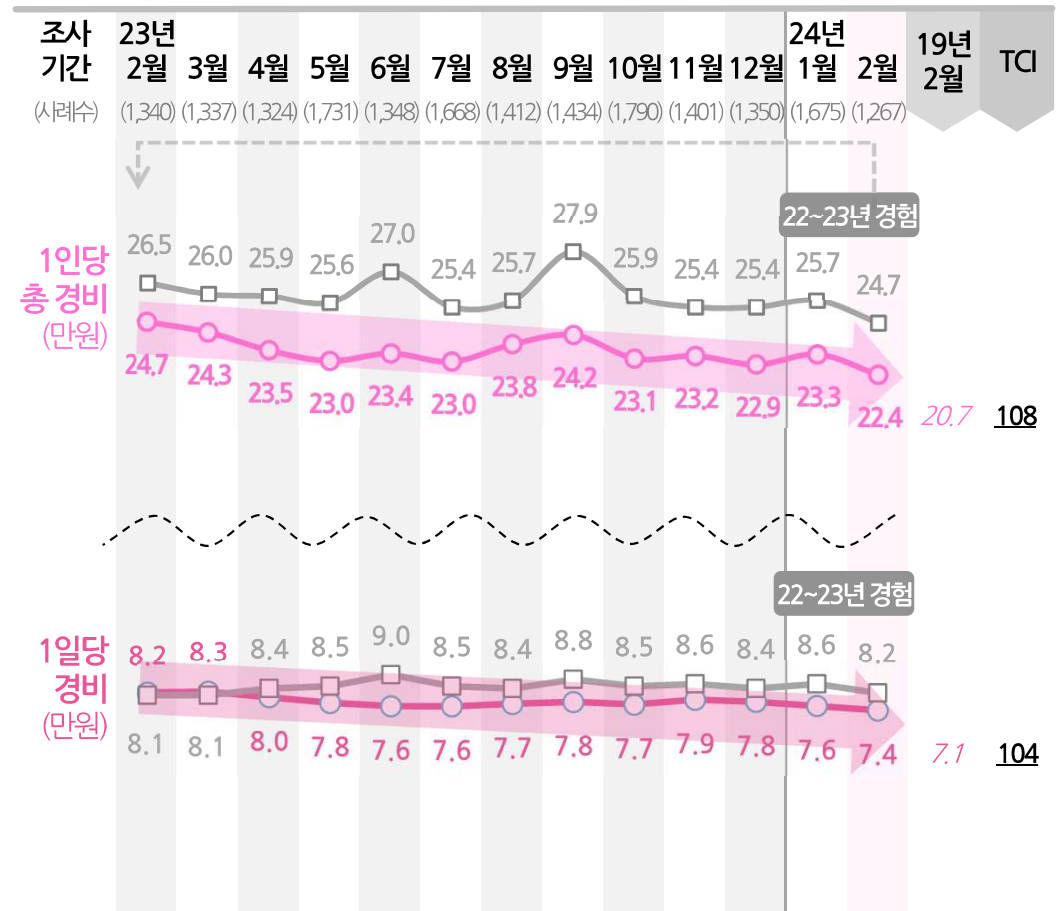


AA3-1. 최근에 다녀온 'OO'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월(24년2월)부터 여행 기간을 밖에서 알로 전환함.

여행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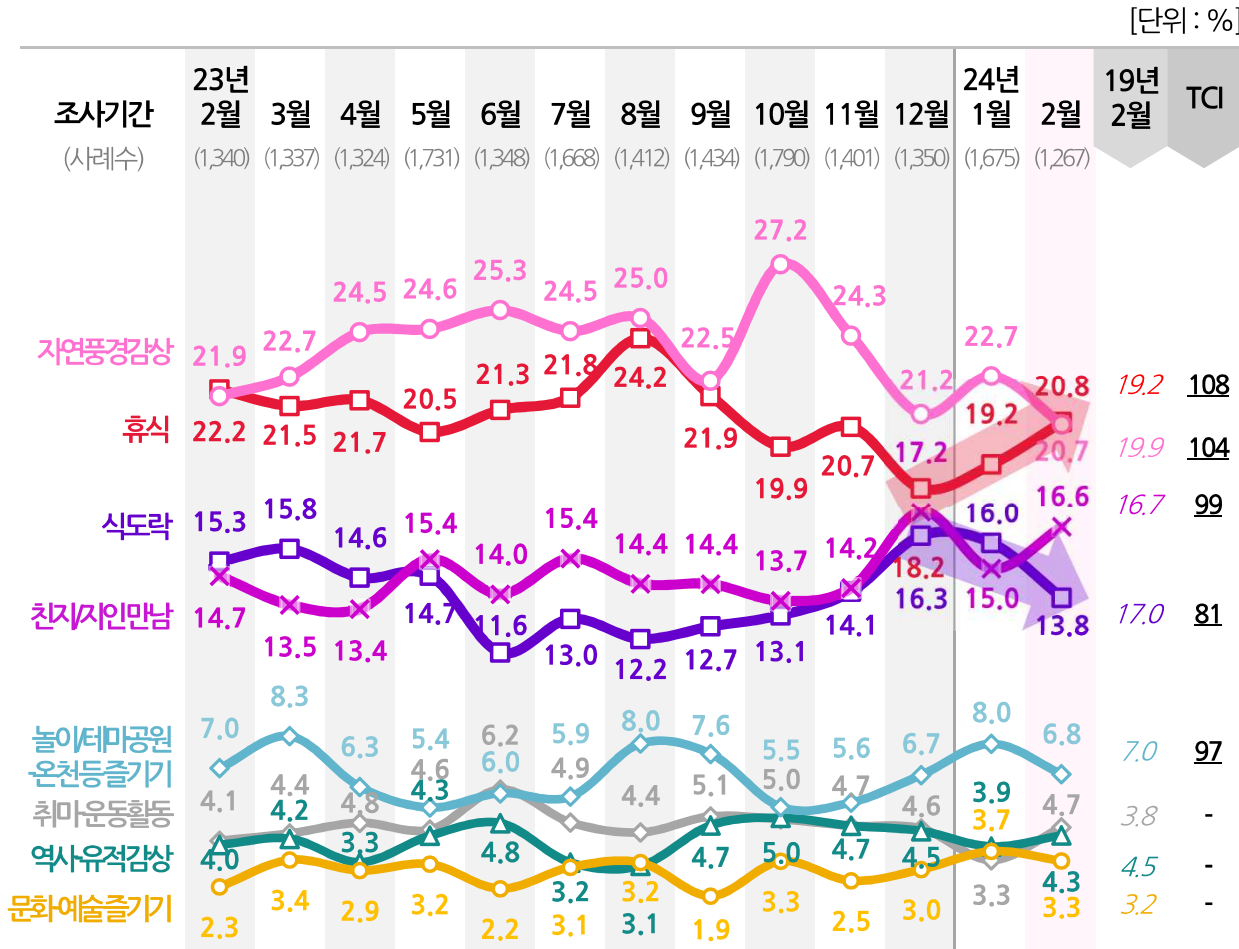
[단위: 만원]



AA17. 'OO' 여행을 위해 1인 기준으로 총 얼마를 지출하셨습니다가?

5. 국내 숙박여행 주 활동

- 국내여행의 주 활동은 지난 2개월간 ‘휴식’은 3.6%p 증가, ‘식도락’은 2.5%p 감소함.
- 비용절감을 위해 ‘휴식’은 늘리고 ‘식도락’은 억제한 것으로 보임.
- TCI를 보면 여전히 ‘자연풍경감상’과 ‘휴식’ 등 정적인 활동이 많고, ‘식도락’ 및 액티비티 활동은 회복이 더딤을 알 수 있음.



AA15-2. 'OO' 여행을 다녀온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 2019년 5.0% 미만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 여행지역별 주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267)	(254)	(134)	(363)	(151)	(271)	(94)
휴식	20.8	24.0	21.0	19.0	19.2	20.7	22.5
자연 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0.7	11.4▽	16.3	19.0	16.0	32.4▲	32.9▲
친지/친구/친척 만나기	16.6	19.7	22.4	21.7▲	16.6	8.5▽	4.3▽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3.8	10.3	15.0	12.7	20.5▲	13.7	15.9
놀이/테마공원-온천 등즐기기	6.8	11.0▲	8.2	6.3	4.0	4.4	6.4
취미-운동 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4.7	2.7	5.2	2.8▽	5.3	7.7▲	6.4
역사-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4.3	3.5	4.4	8.0▲	3.3	1.8▽	1.1
문화-예술 즐기기 (미술관, 공연 등)	3.3	7.1▲	3.0	2.5	4.6	0.7▽	2.1

* ▲▽ 표시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p<0.05)

6. 국내여행 숙박 장소 및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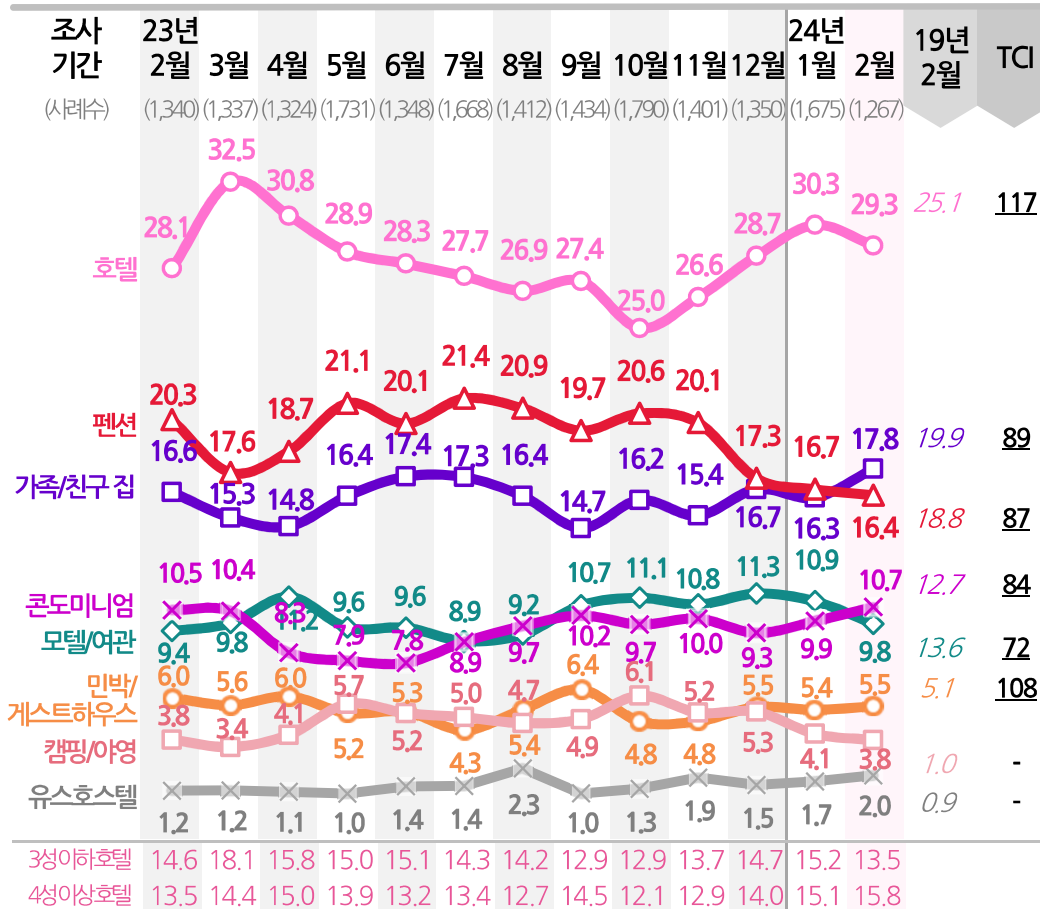
II-1. 국내여행 동향

13/40

- 숙박 장소는 ‘호텔(29.3%)’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친구 집(17.8%)’, ‘펜션(16.4%)’ 순임.
전월대비 ‘가족/친구 집’과 ‘콘도미니엄’이 상승함.
- 숙박업소 선택 이유는 ‘숙박 비용(20.6%)’이 가장 높고, ‘관광지 접근성 및 교통편(20.0%)’, ‘청결/위생(12.8%)’ 등의 순임.
TCI를 보면 ‘숙박 비용’은 139로 높은 반면 이외 항목들은 90미만으로 비용 중요성이 커졌음을 알 수 있음.

국내여행 숙박행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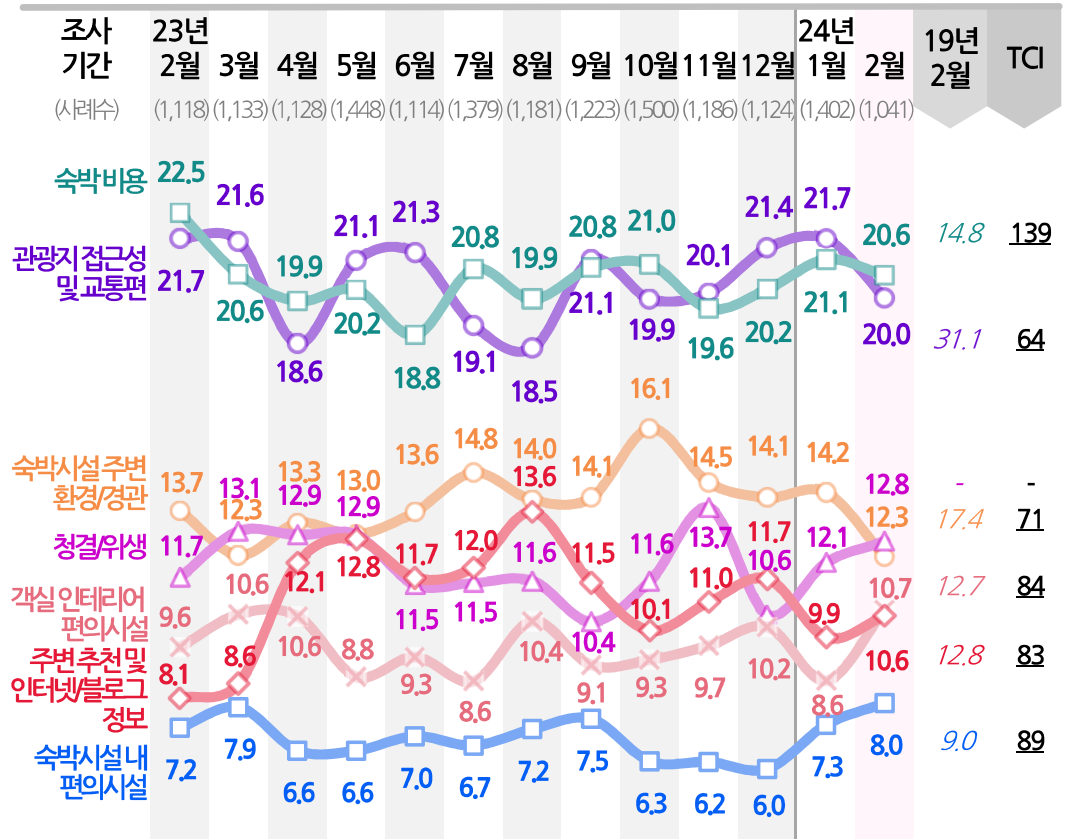


AA10. 'OO'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셨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숙박업소 선택 이유

[단위 : %]



* 사례수 1,041명, 가족/친구집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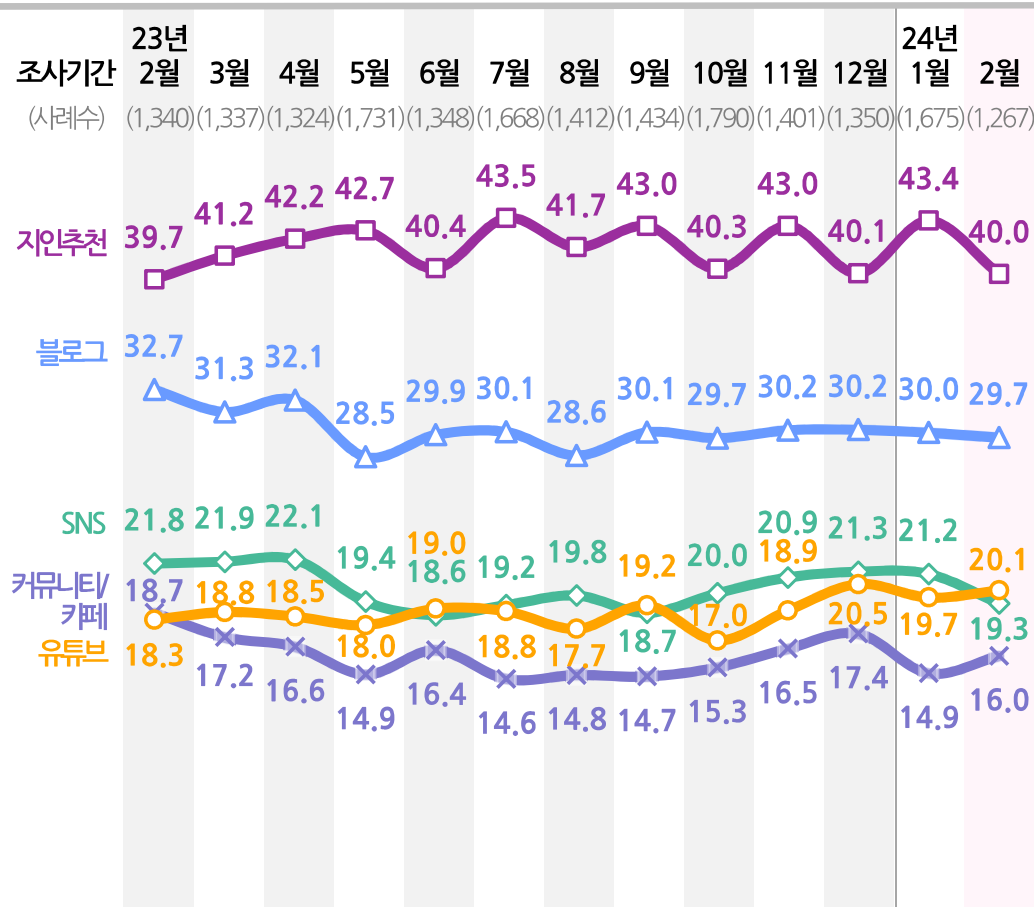
AA11-1. 이용하신 숙박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7. 국내여행 여행지 정보탐색

- 국내 여행지 정보 탐색 시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의 활용도가 ‘전문/공식 정보채널’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전문/공식 정보채널’은 지난 1년간 점진적 하락 추세가 이어져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은 ‘지인추천(40.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블로그(29.7%)’, ‘유튜브(20.1%)’의 순임.
- ‘전문/공식 정보채널’은 사실상 ‘여행지 정보’를 찾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의 마케팅 전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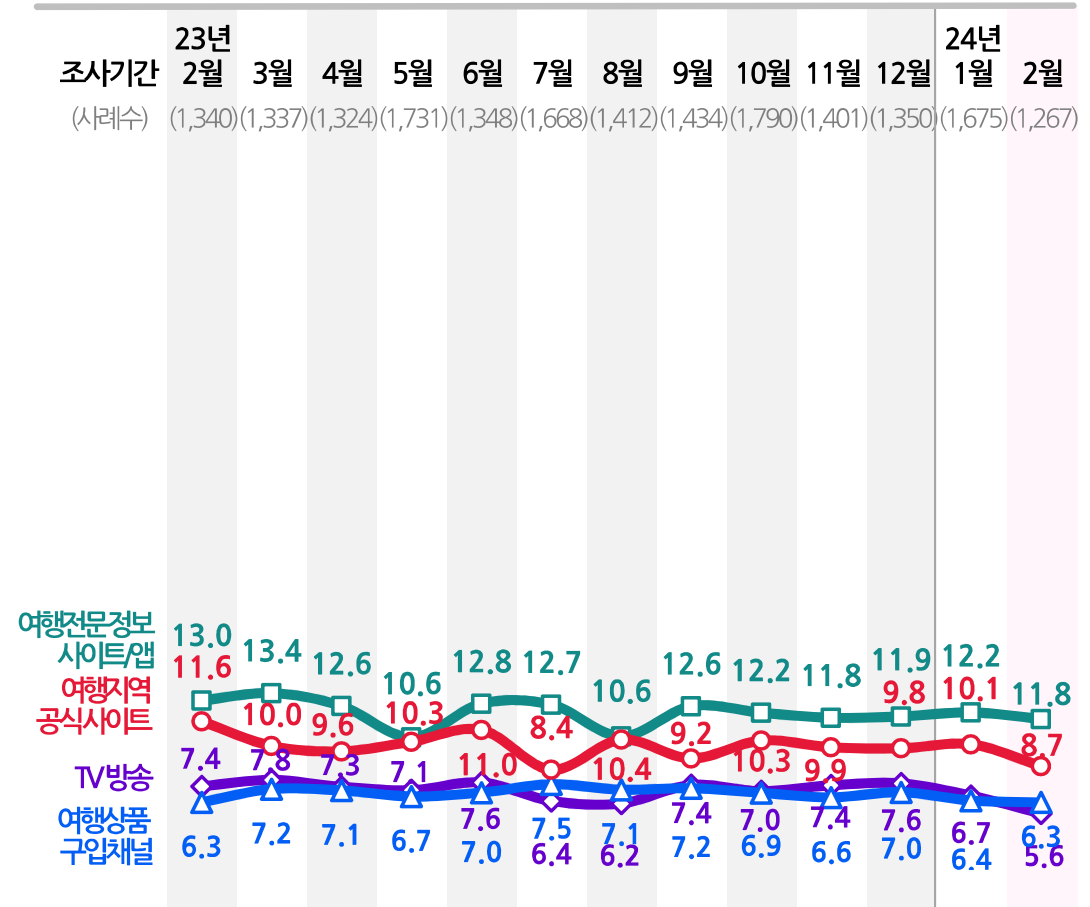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



AA2-3-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여행지 결정 시)

8. 국내여행 숙소 정보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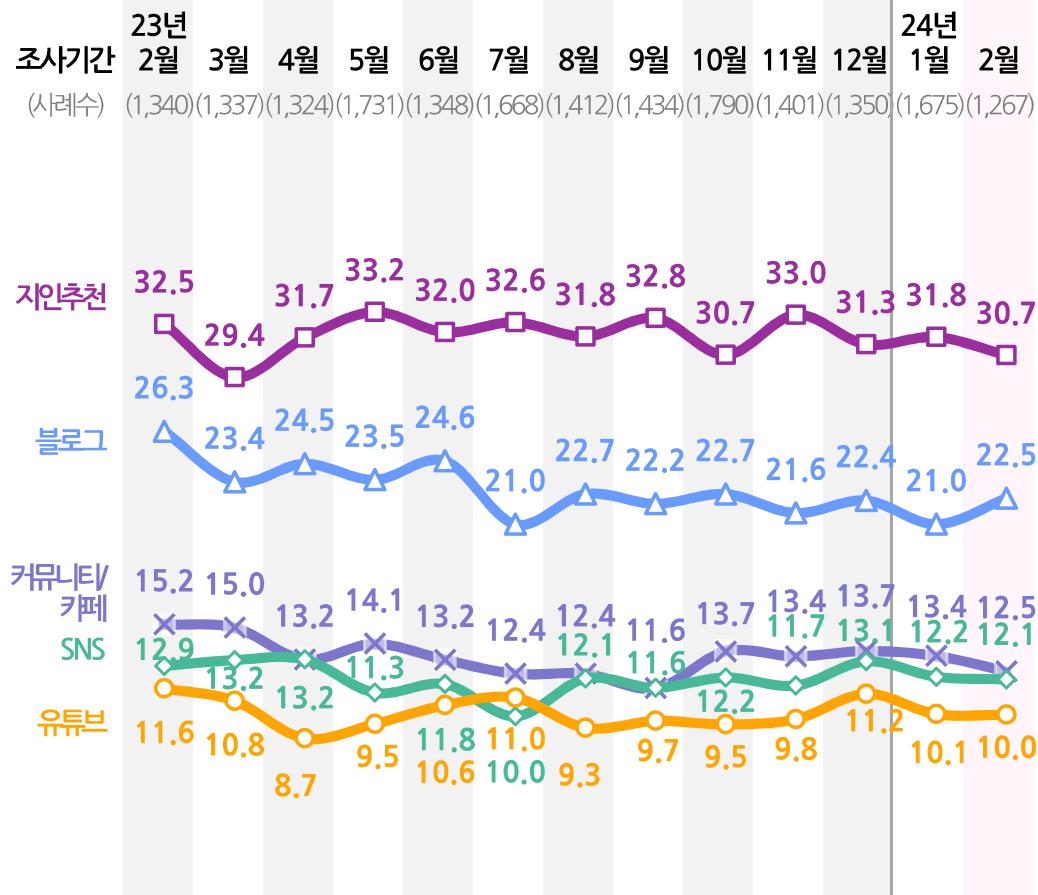
II-1. 국내여행 동향

15/40

- 숙소 정보 탐색은 '지인추천(30.7%)'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이어서 '블로그(22.5%)', '여행상품 구입채널(21.2%)'순임.
- '국내 여행지 정보탐색'과 달리 숙소는 '전문/공식 정보채널'의 '여행상품 구입채널'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지인추천'과 '블로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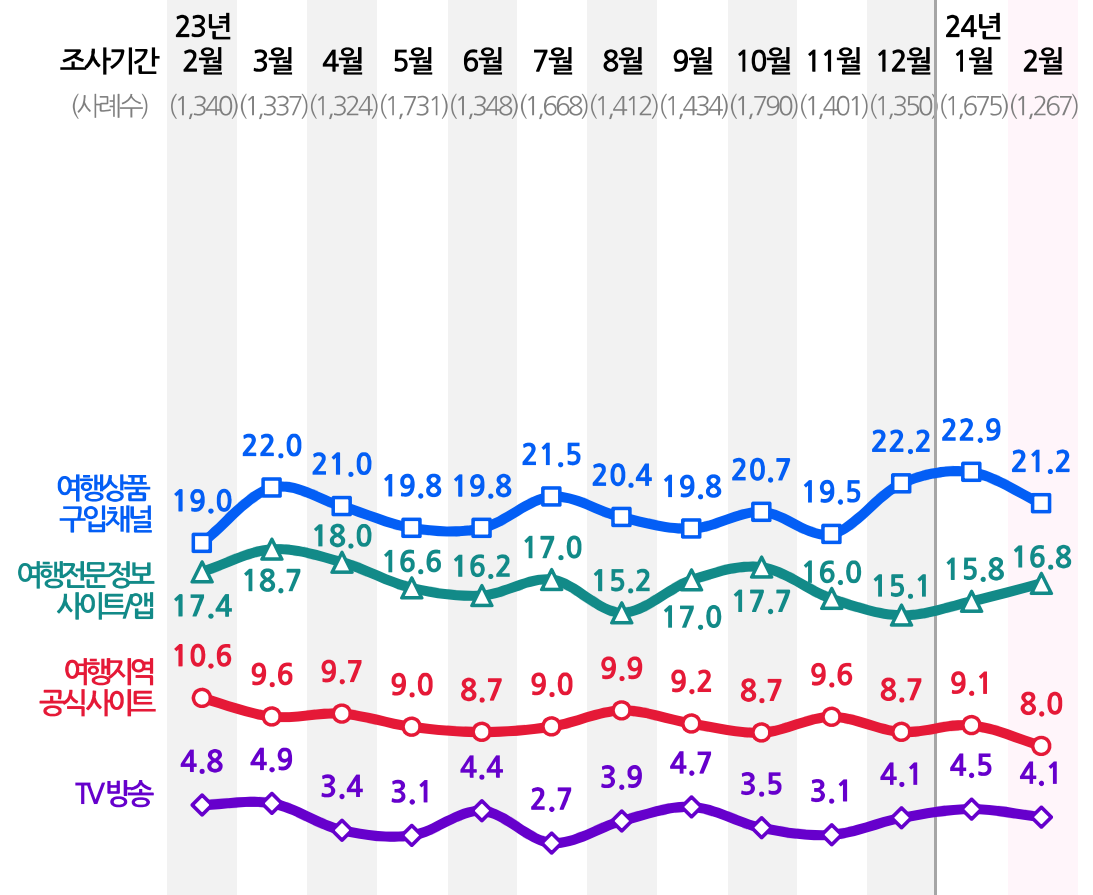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



AA3-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숙소)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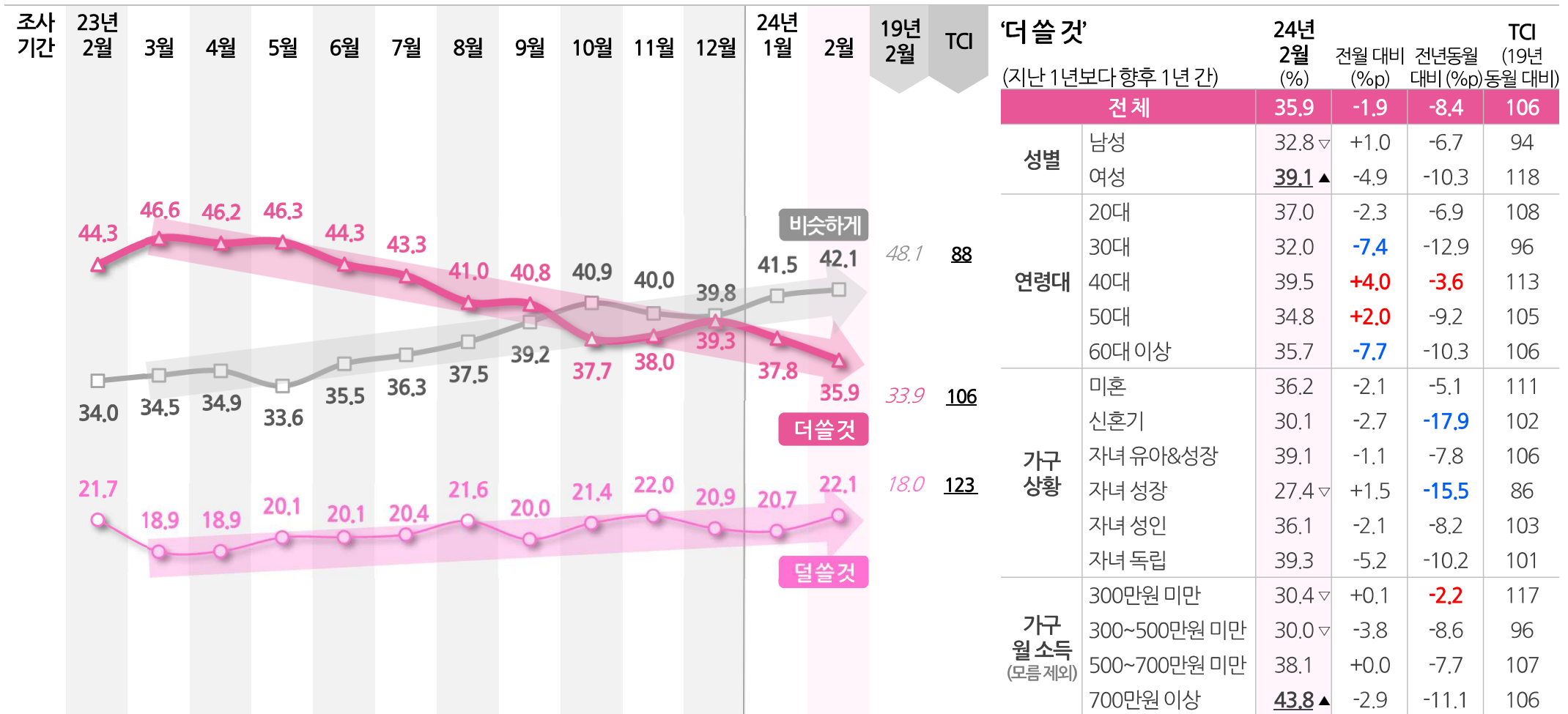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국내 여행비 지출 의향 (향후 1년)

- 국내 여행비 지출의향(향후 1년간, 지난 1년에 비해)은 ‘비슷하게’ 42.1%, ‘더 쓸 것’ 35.9%, ‘덜 쓸 것’은 22.1%순임.
- '23년 2월 이후 ‘더 쓸 것’은 계속 하락(10.7%p)하고, ‘비슷하게’와 ‘덜 쓸 것’은 상승(각각 7.6%p, 3.2%p)해 국내 여행비 지출 감소가 전망됨. ‘여행비 지출 행동(p.11)’에 이어 ‘지출 의향’도 감소 추세가 일관되어, 국내 여행산업의 심각한 위축이 예상되고 있음.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더 쓸 것’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1,000명)

SQ1-3. 국내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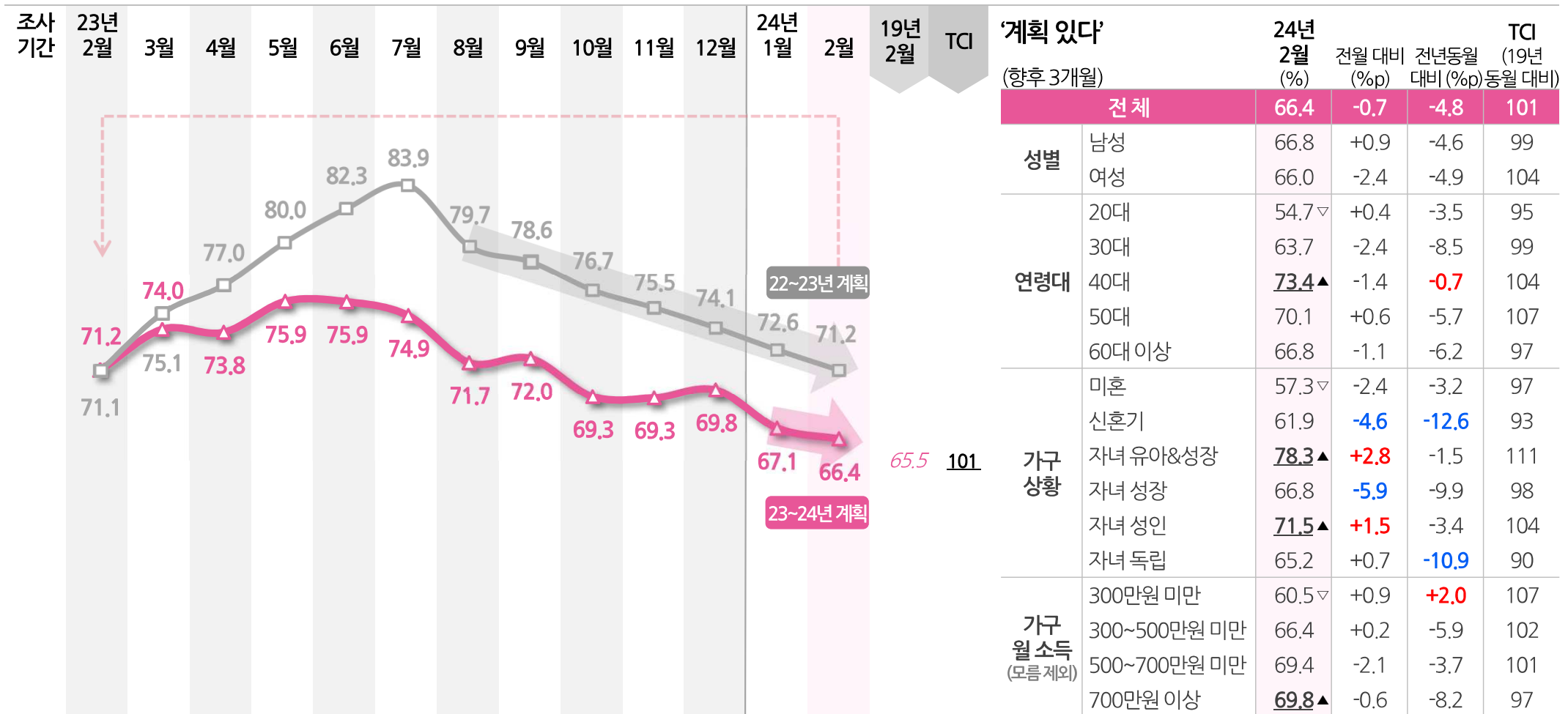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위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 (향후 3개월)

- 3개월 이내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은 전월 대비 0.7%p 감소한 66.4%임.
- TCI는 101로 코로나 이전 동월(65.5%)과 비슷한 수준이며, 코로나 기간 높았던 국내여행의 인기가 평년 수준이 됨.
- 인구특성별로는 △40대 △자녀 유아&성장기 △자녀 성인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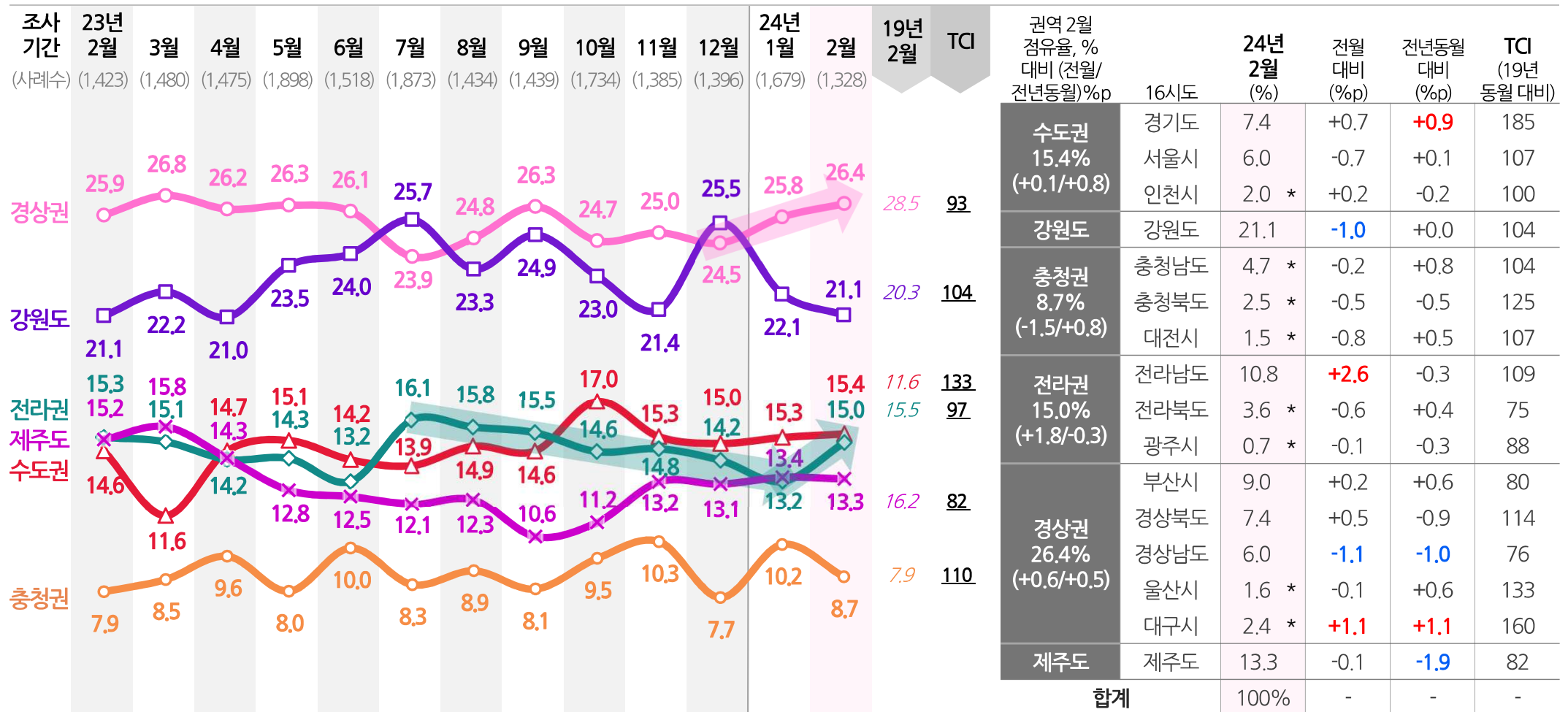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1,000명)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국내 숙박여행 예정 지역

- 국내 숙박여행 예정 지역은 '경상권(26.4%)'이 가장 높고, 이어 '강원도(21.1%)', '수도권(15.4%)' 순임.
- '23년 8월 이후 하락세였던 '전라권(15.0%)'은 전월대비 1.6%p 상승해 '수도권(15.4%)'을 위협하고 있음.
- TCI는 '수도권'이 133으로 가장 높고 가장 높고, '제주도'가 82로 가장 낮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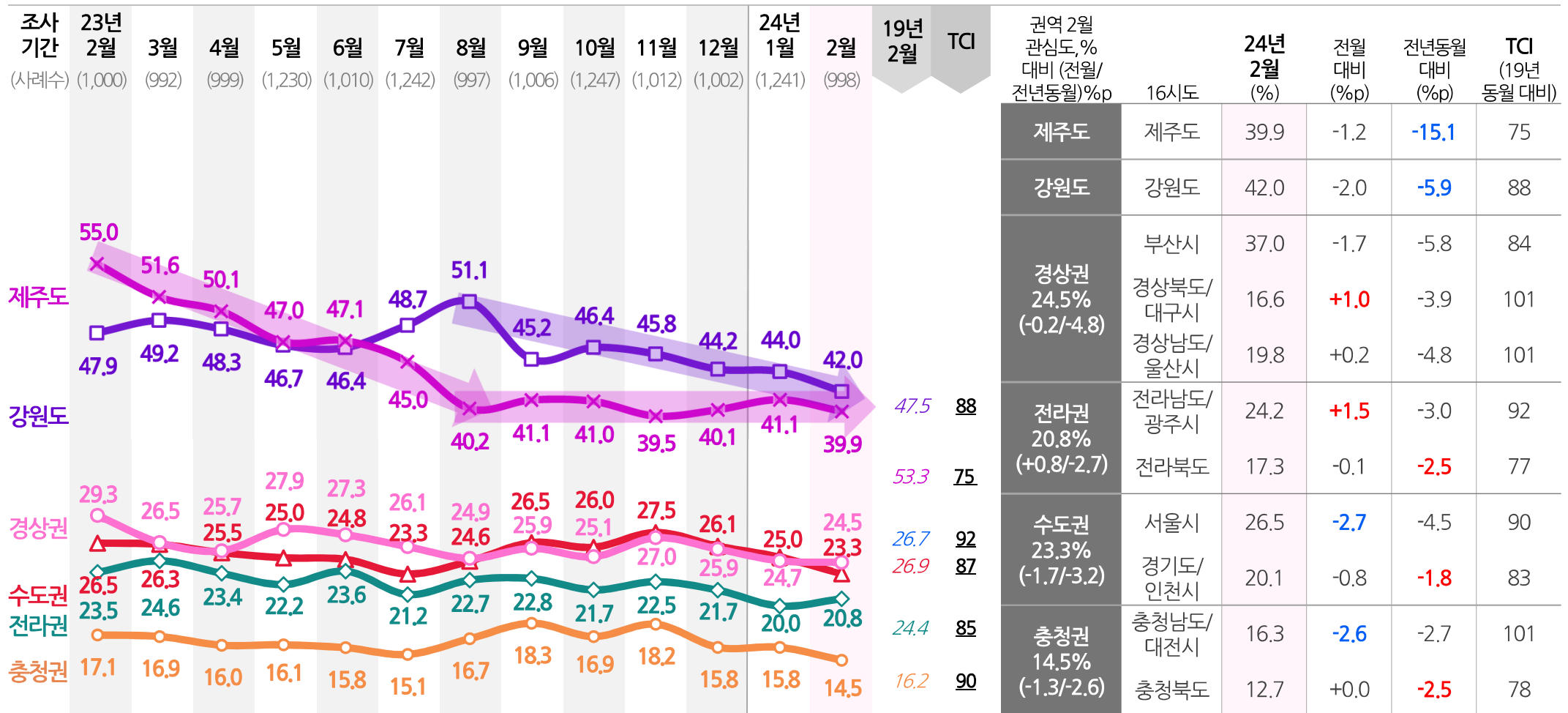
A2-1&2.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 5% 이하 해석에 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국내 여행지 관심도

- 지난 1년 간 국내여행 지역 관심도(% ,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 '강원도(42.0%)'가 '23년 7월 제주도를 제치고 선두 자리를 차지한 후 1위를 유지 중이나, 하락세임.
- '제주도(39.9%)'는 '23년 8월까지 급락(40.2%)한 이후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국내 여행지 관심도의 TCI는 모두 100미만으로 '19년 동월 대비 저조하며, 제주도가 75로 가장 낮음.

[단위 : Top2 box%(매우 많아졌다+많아졌다)]



SQ2-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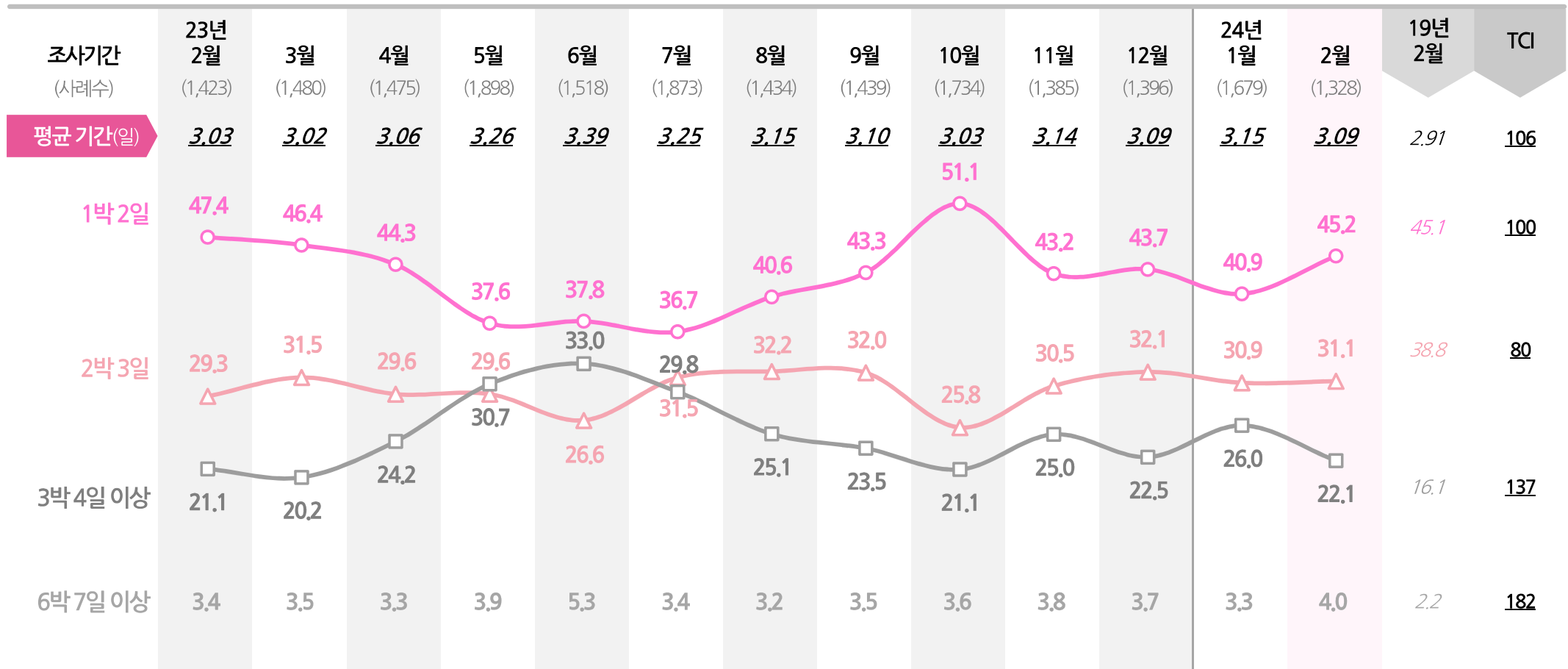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시도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5. 국내 숙박여행 계획 기간

- 당월 국내 숙박여행 계획 기간은 평균 3.09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함.
- ‘1박 2일(45.2%)’ 단기 여행 계획이 증가한 반면, ‘3박 4일 이상(22.1%)’ 장기 여행은 감소함.
- 그러나, 여전히 계획 중인 국내 숙박여행 기간 평균의 TCI는 106로 코로나 이전 대비 깊.

계획 중인 여행 기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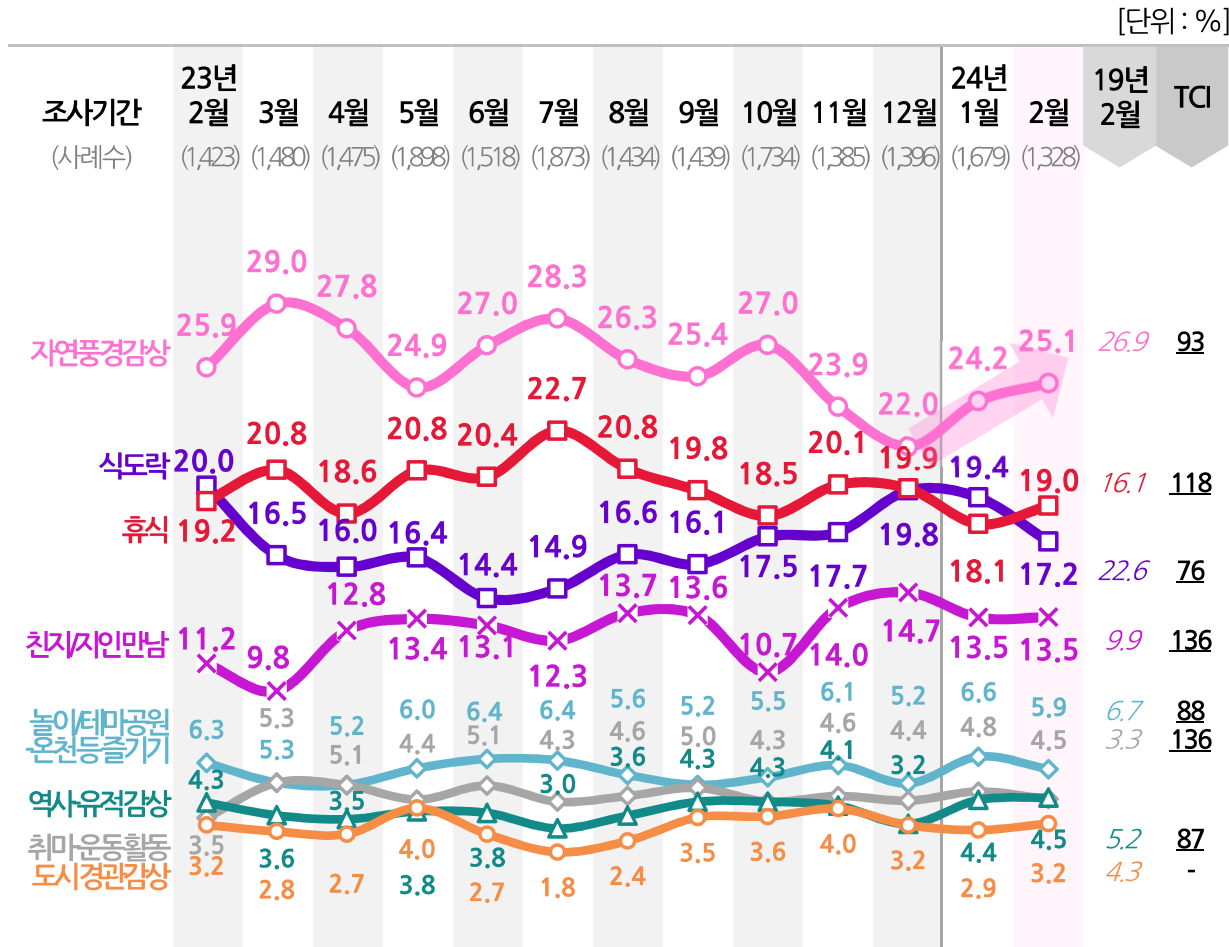


A3-1. 계획하고 계산 'OO'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월(24년 2월)부터 여행 기간을 밖에서 '알로' 전환함.

6. 국내 숙박여행 계획 활동

- 계획 중인 숙박여행의 주 목적은 ‘자연풍경감상(25.1%)’, ‘휴식(19.0%)’, ‘식도락(17.2%)’ 등의 순임.
- ‘휴식’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 ‘식도락’은 전월 대비 2.2%p 하락하면서 순위가 뒤바뀌었으나, 2~4위 간 격차가 크지는 않음.
- ‘자연풍경감상’은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며, ‘친지/지인 만남’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높음.
- ‘식도락’의 TCI가 76으로 '19년 동월(22.6%)대비 저조함.



▶ 여행지역별 주 계획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328)	(205)	(115)	(351)	(200)	(280)	(177)
자연 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5.1	9.2 ▽	18.3	19.4 ▽	30.6	35.7 ▲	36.1 ▲
휴식	19.0	21.9	19.2	16.5	13.4 ▽	19.3	26.5 ▲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7.2	8.7 ▽	15.7	22.5 ▲	21.0	15.0	17.0
친지/친구/친척 만나기	13.5	22.9 ▲	20.0 ▲	14.2	12.0	9.7 ▽	4.5 ▽
놀이/테마공원-온천 등즐기기	5.9	9.7 ▲	9.5	5.1	4.5	3.9	5.7
취미-운동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4.5	2.4	5.2	4.0	3.5	7.2 ▲	4.0
역사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4.5	3.4	5.2	7.7 ▲	6.0	2.1 ▽	1.1 ▽
도시 경관 감상 (건축물, 거리 등)	3.2	6.4 ▲	1.8	3.1	3.5	2.1	2.3

A4-3. 여행을 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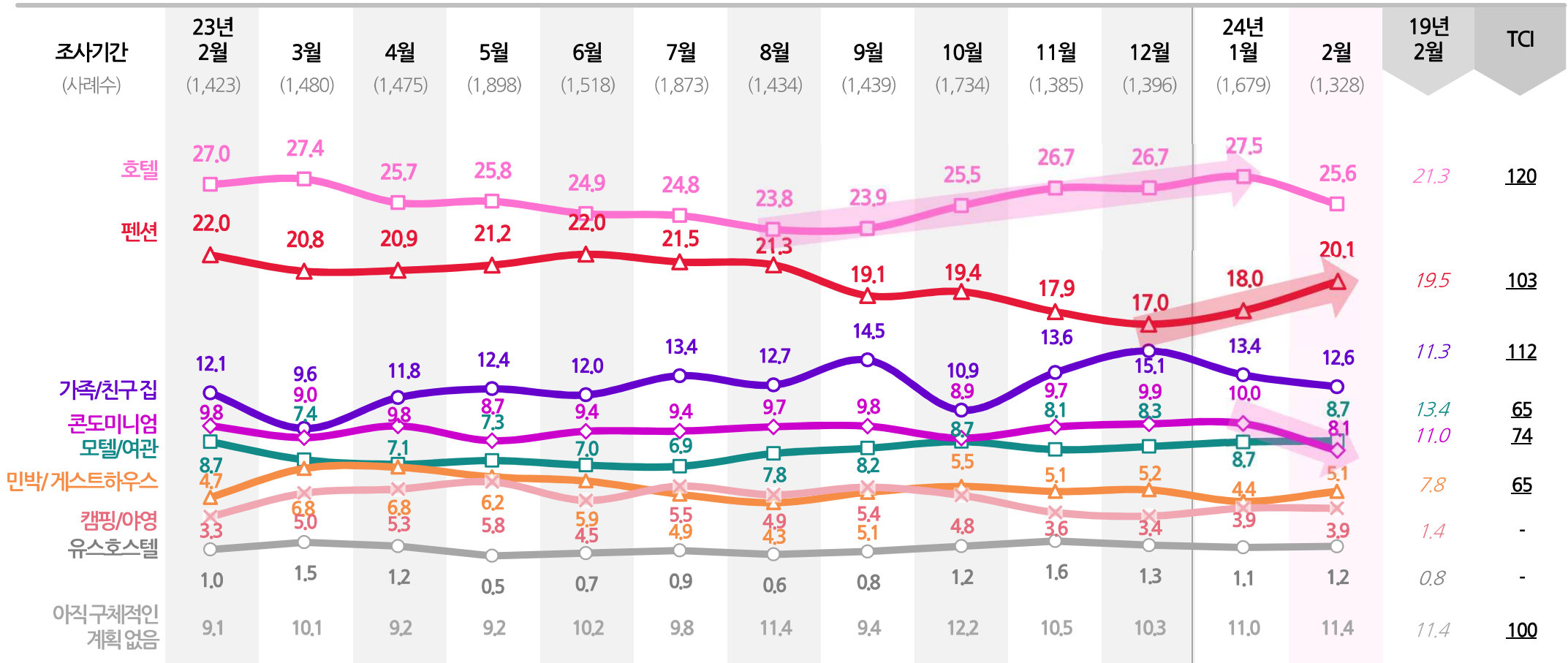
*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7. 국내여행 숙박 예정 장소

- 숙박 예정 장소는 ‘호텔(25.6%)’이 가장 높고, 그 다음 ‘펜션(20.1%)’, ‘가족/친구 집(12.6%)’ 등의 순임
- 전월 대비 ‘펜션’은 2.1%p 상승하고, ‘호텔’과 ‘콘도미니엄’은 1.9%p씩 하락함.
- ‘호텔’의 TCI는 120으로 코로나 이전 보다 고려율이 높은 반면, ‘모텔/여관(TCI 65)’, ‘콘도미니엄(TCI 74)’, ‘민박/게스트하우스(TCI 65)’은 낮아짐.

국내여행 숙박 예정 장소

[단위 : %]



A10. 여행지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오

* 2019년 5.0% 미만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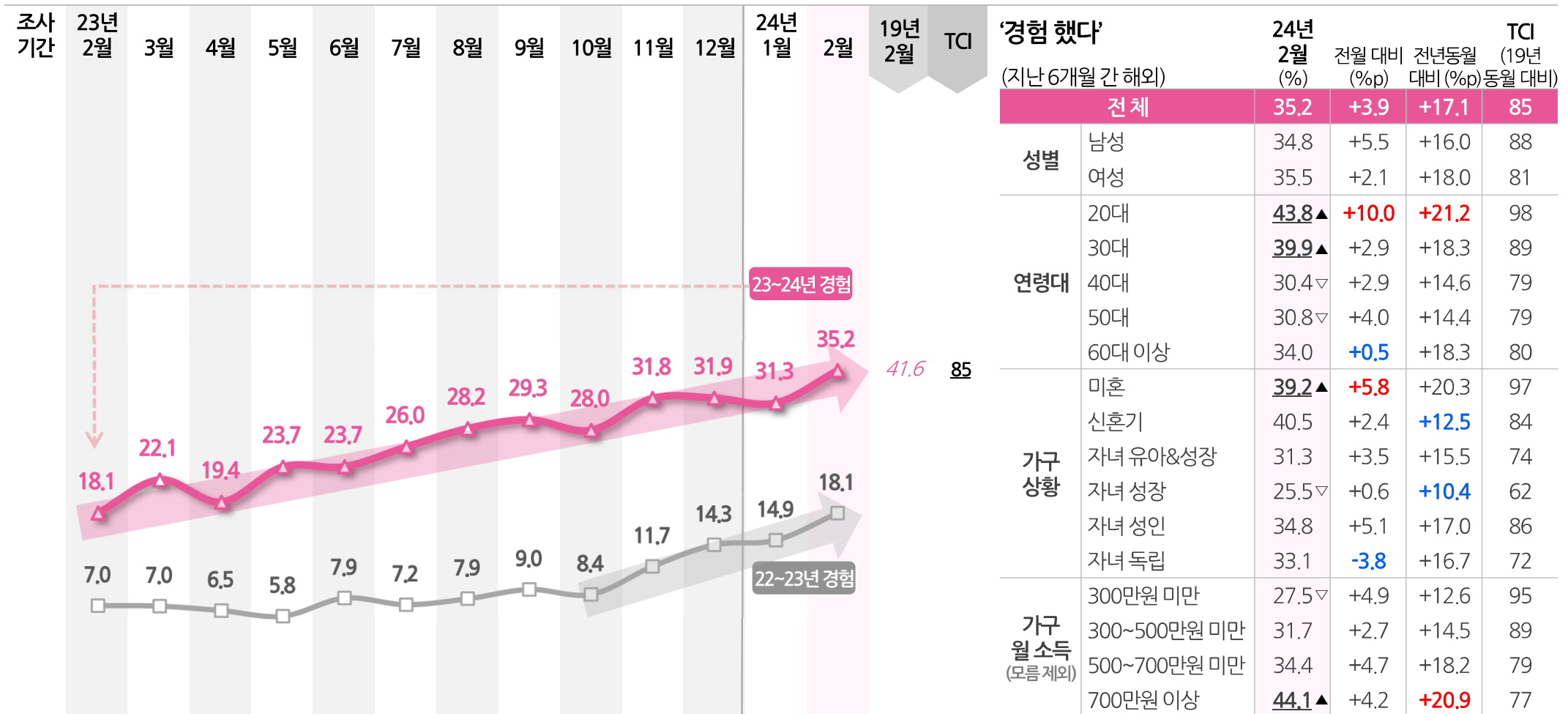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여행 경험률 (지난 6개월)

- 지난 6개월간 해외여행 경험률은 35.2%로 '22년 10월(8.4%)이후 꾸준히 상승함.
- TCI는 85로 코로나 이전 동월(41.6%)에 미치지 못하나, 현 추세라면 6개월 후에는 TCI 10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특성별로는 △20대 △30대 △미혼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경험률이 높음.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 주와 단순이동 평균(1,000명)

SQ4-0. 귀하께서는 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SQ4-0-1. 그렇다면, 지난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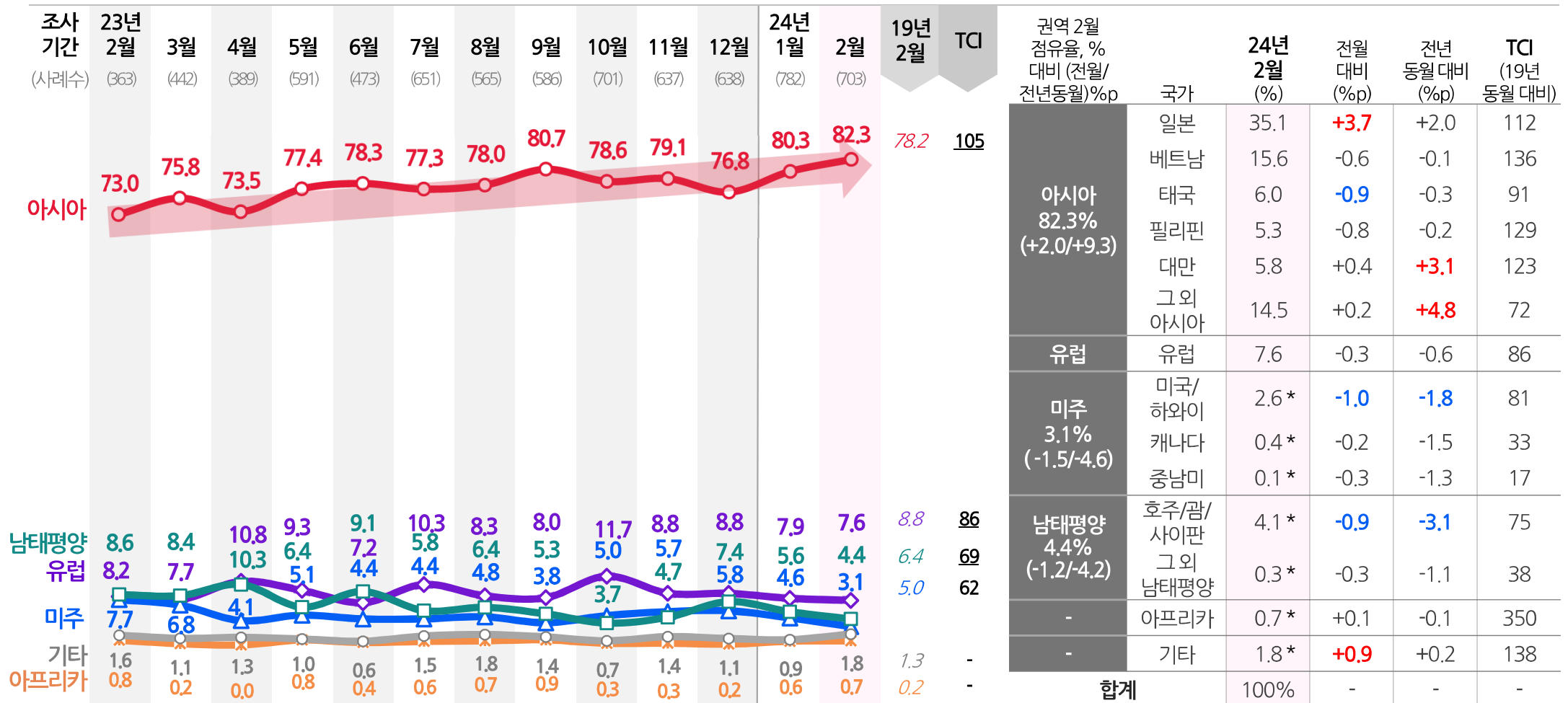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해외여행 지역 (지난 6개월)

- 해외여행지 점유율은 지난 1년간 '아시아'가 꾸준히 상승하며 82.3%를 차지함.
- '일본'의 점유율은 35.1%이며, 전월 대비 3.7%p 상승함.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TCI를 보면, '아시아'는 105이고, 특히 '베트남(136)', '필리핀(129)', '대만(123)'이 우세함. 반면, '유럽' 86, '남태평양' 69, '미주' 62로 '19년 동월 대비 점유율이 저조함.

[단위: %]



BB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주로 여행하신 지역을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 5% 이하 해석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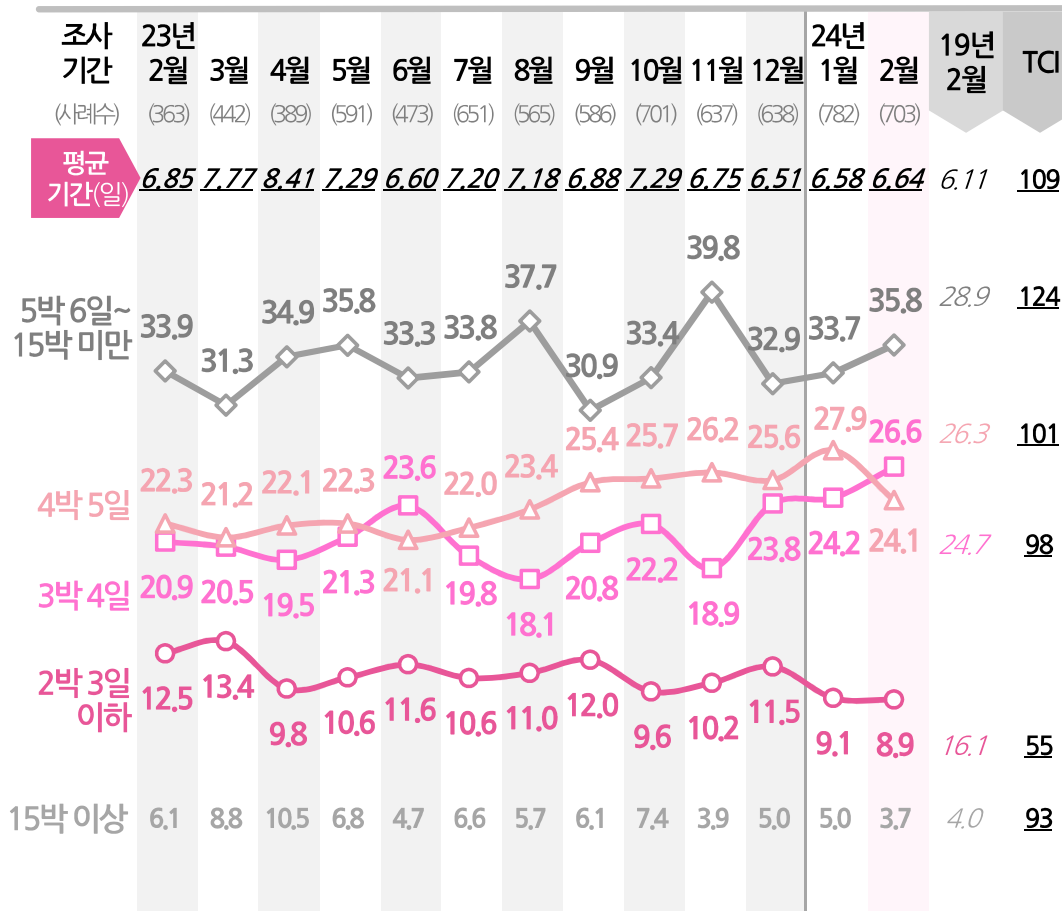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해외여행 기간 및 비용

- 지난 6개월 간 다녀온 해외여행의 평균 기간은 6.64일, 1인당 총 경비 175.9만 원, 1일당 경비 26.5만 원임.
- ‘단기여행(2박 3일 이하 8.9%)’은 감소하고, ‘중장기여행(5박6일~15박 미만 35.8%)’은 증가함.
- 주요 지표의 TCI는 여행기간 109, 1인당 총 경비 123, 1일당 경비 119로 코로나 이전보다 여행 기간은 늘어나고 더 많은 비용을 씀.

여행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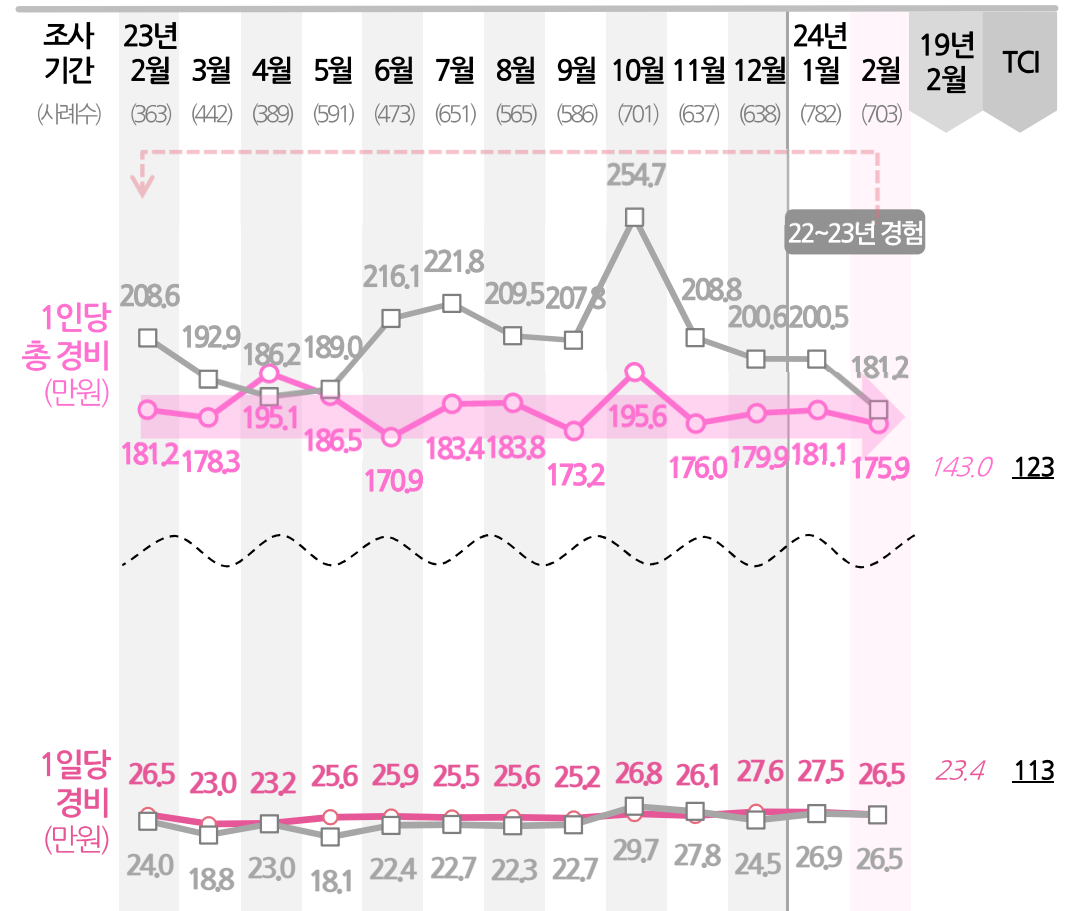


BB5-2. 다녀온 'OO'여행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월(24년 2월)부터 여행 기간을 박에서 알로 전환함.

여행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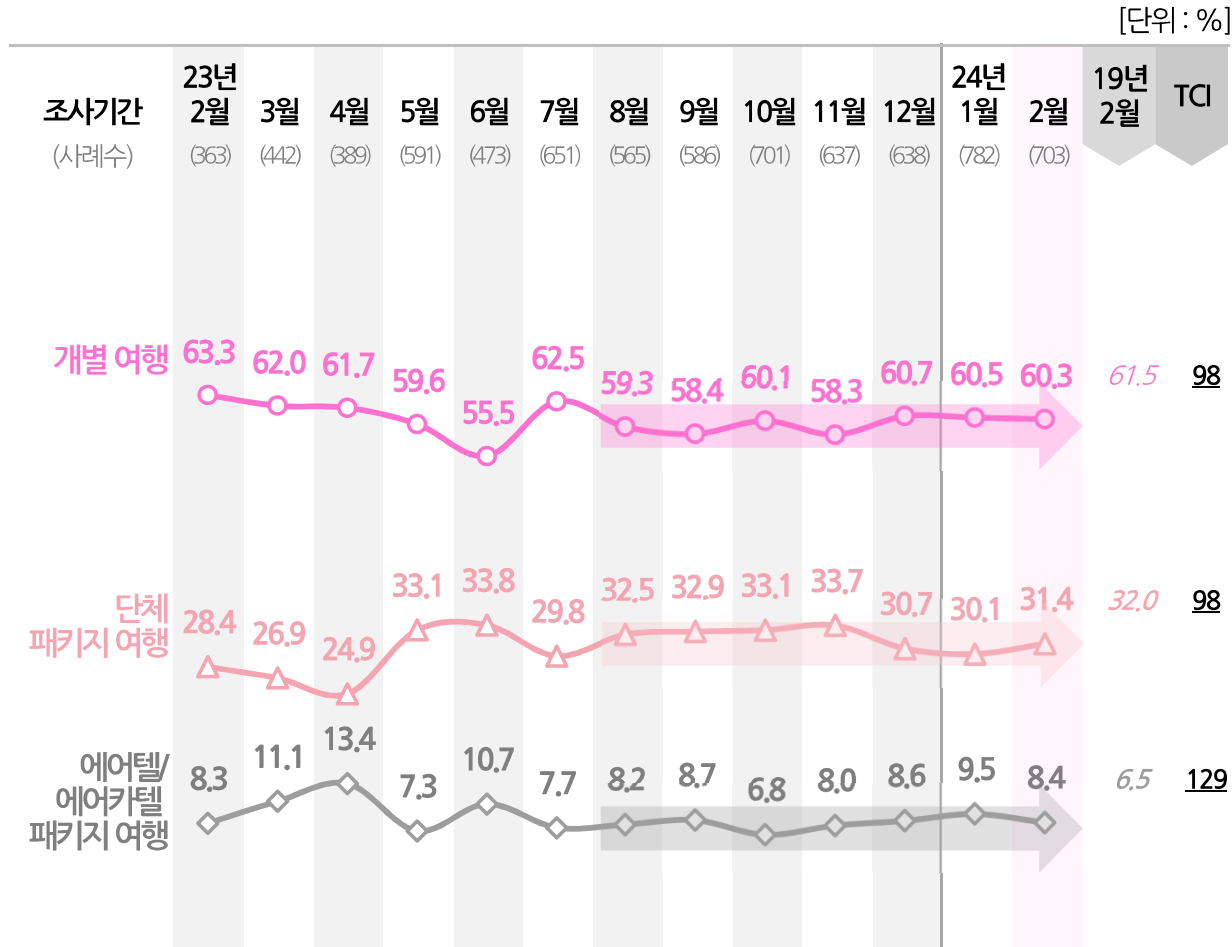
[단위: 만원]



BB16. 'OO' 여행에서 각 부분들을 위해 대략 얼마정도 지출하셨습니다가?

4. 해외여행 형태

-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 여행(FIT)'이 60.3%, '단체 패키지'는 31.4%,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는 8.4%순으로, '23년 8월 이후 큰 변동이 없음.
-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TCI 129)'가 '19년 동월 대비 크게 늘었고, '개별 여행(TCI 98)'과 '단체 패키지(TCI 98)' 비율은 소폭 감소함.
-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는 △미주와 △남태평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BB8. 'OO'여행은 어떤 형태로 가셨나요?

▶ 여행지역별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703)	(579)	(22)	(53)	(31)	(5)
개별 여행	60.3	62.8▲	68.2	39.6▽	45.3	59.4
단체 패키지 여행	31.4	29.2▽	18.2	52.9▲	41.8	40.6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8.4	7.9	13.6▲	7.5	12.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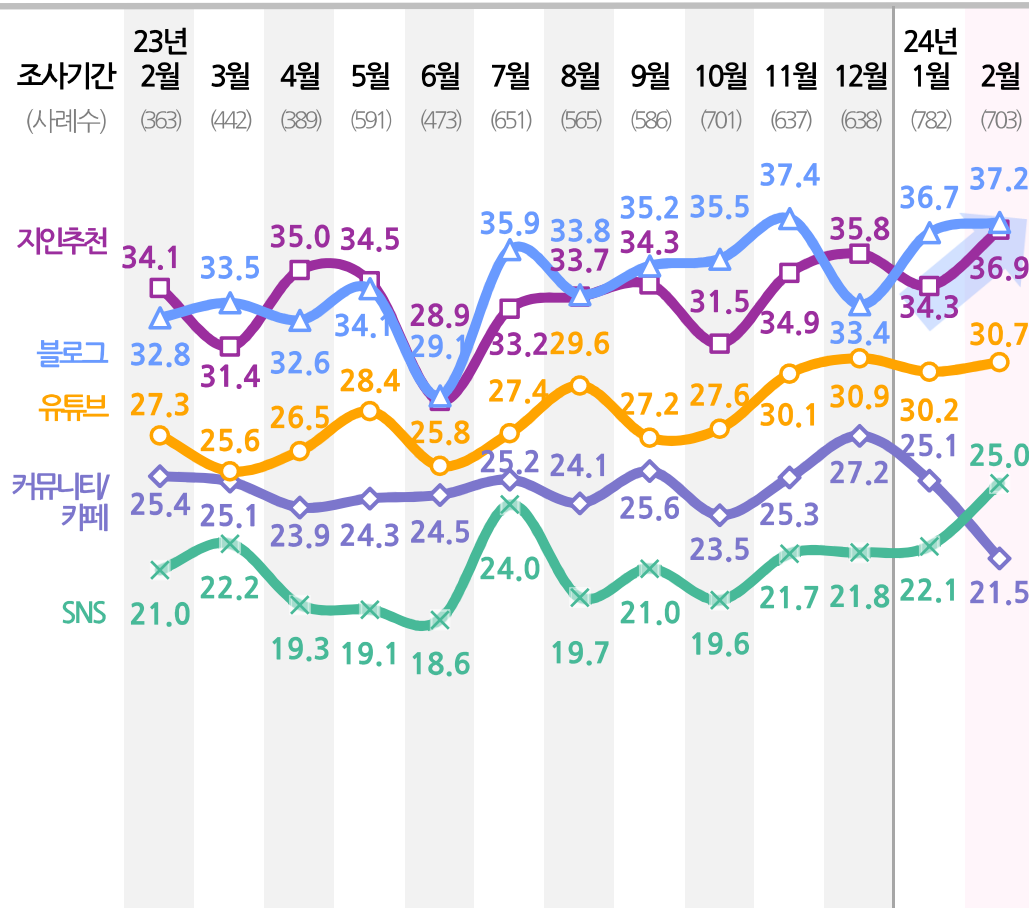
* ▲▽ 표시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p<0.05)

5. 해외여행 여행지 정보탐색

- 해외여행지 정보 탐색 시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의 ‘블로그’가 37.2%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이어 ‘지인추천(36.9%)’, ‘유튜브(30.7%)’, ‘SNS(25.0%)’ 순임.
- ‘전문/공식 정보채널’에서는 ‘여행전문 정보사이트/앱(22.3%)’와 ‘여행상품 구입채널(19.5%)’이 강세를 보임.
- 전월대비 ‘지인추천’, ‘SNS’ 활용이 늘고, ‘커뮤니티/카페’가 줄어든 것은 이번 달 해외여행의 △20대 △미혼 층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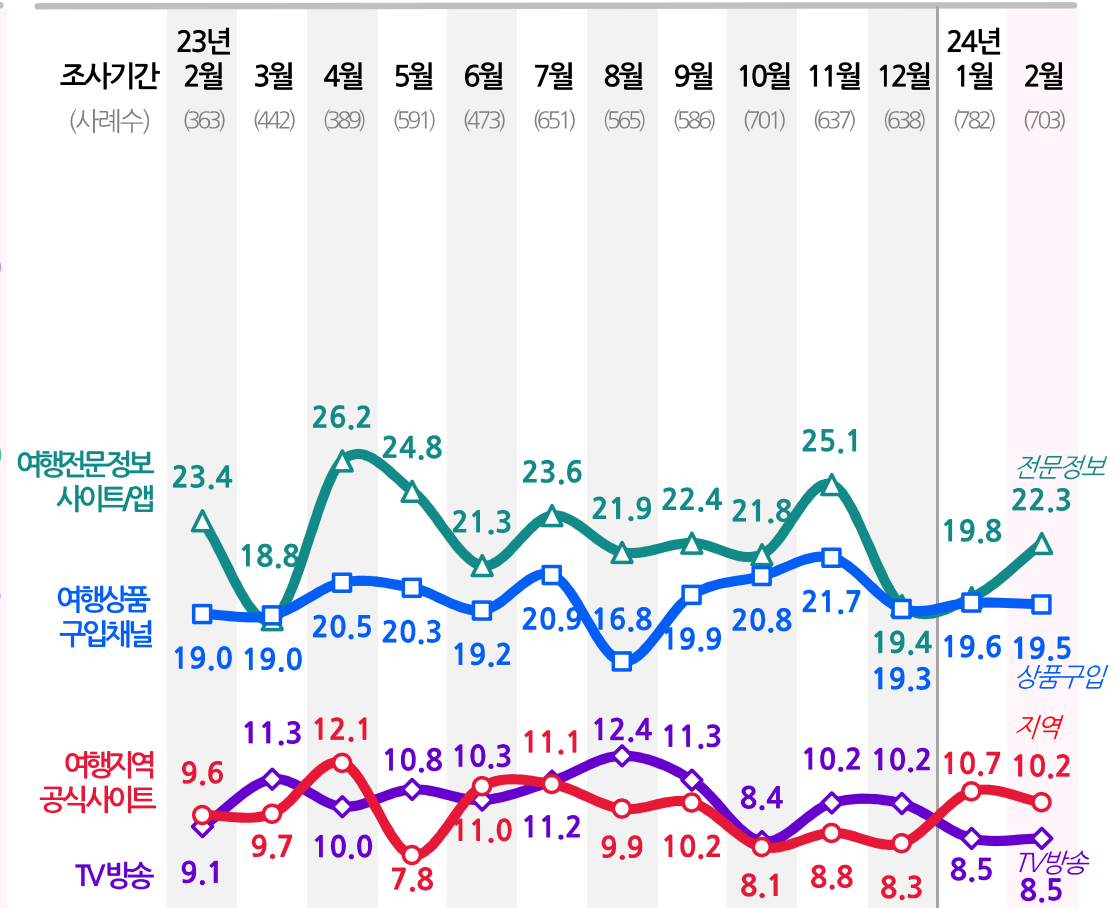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BB5-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여행지)

6. 해외여행 숙소 정보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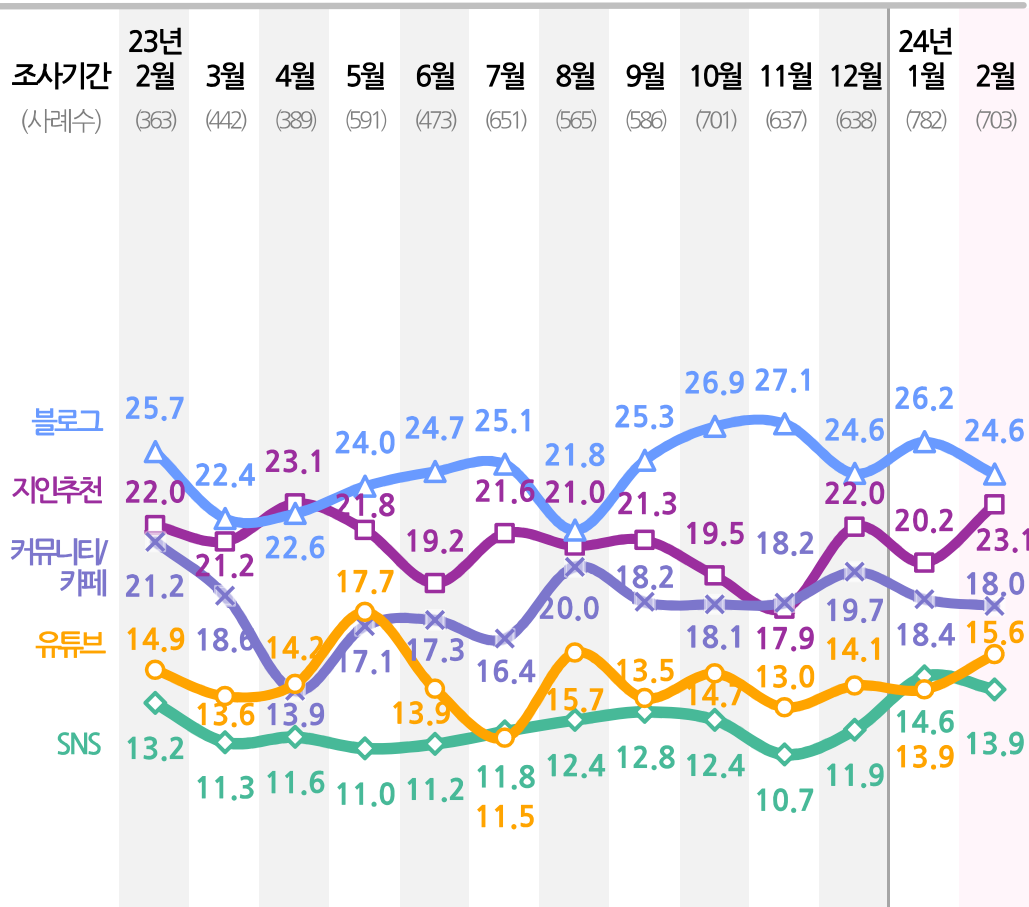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30/40

- 해외여행 '숙소' 정보탐색 시에는 '여행상품 구입채널(29.0%)'과 '여행전문 정보 사이트/앱(25.1%)' 등 '전문/공식 정보채널' 중 상업적 채널의 활용도가 높음.
-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에서는 '블로그' 이용률은 감소하고, '지인추천'은 전월 보다 2.9%p 상승하면서, 차이가 좁혀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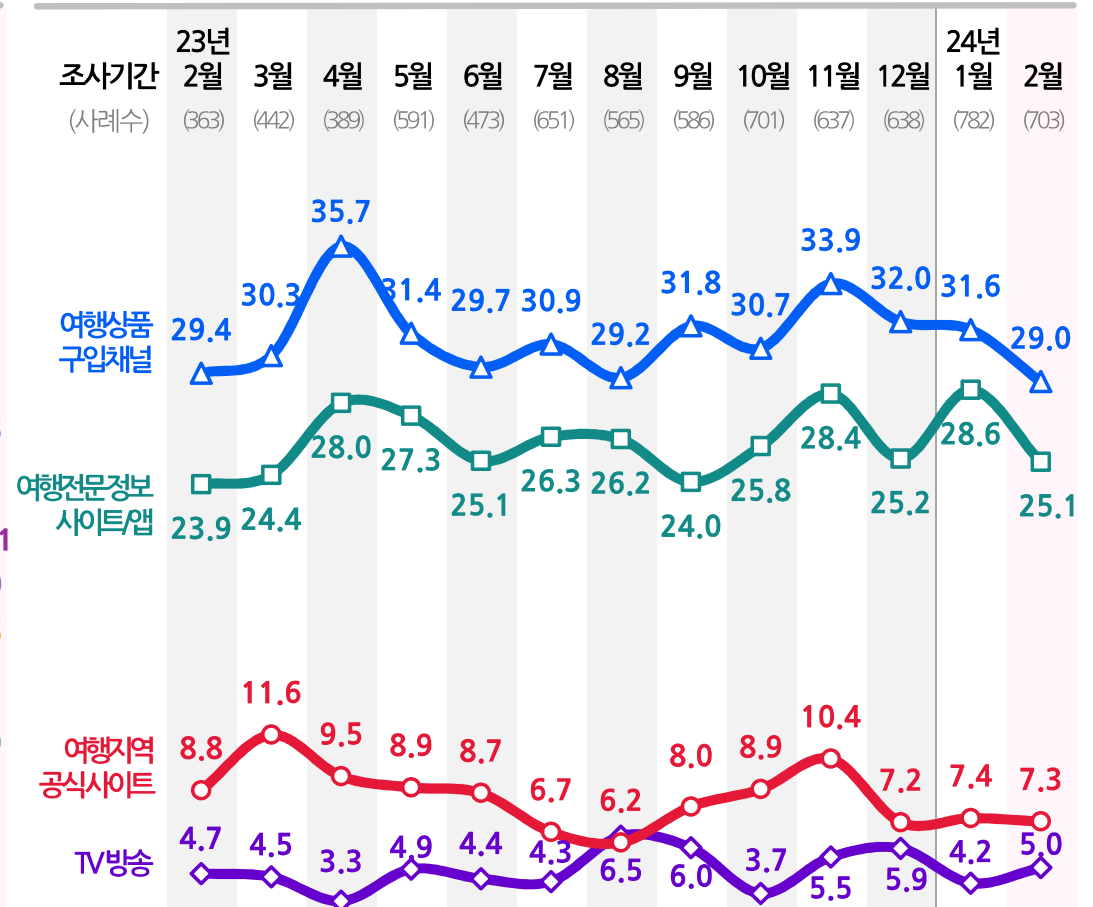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전문/공식 정보채널

[단위: %]



BB5-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숙소)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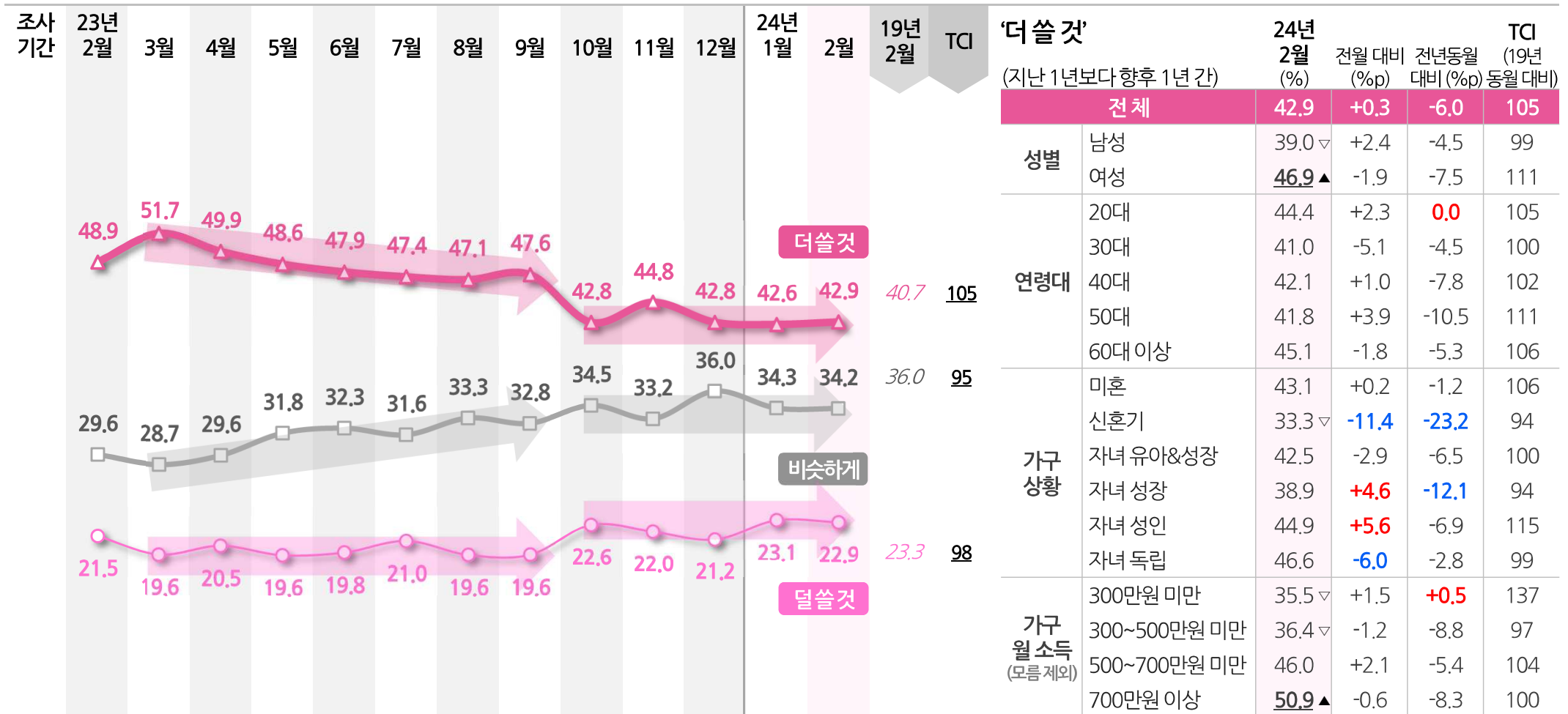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 여행비 지출 의향 (향후 1년)

- 향후 1년간 해외 관광·여행비 지출의향은 '23년 10월 이후 '더 쓸 것' 43%, '비슷하게' 34%, '덜 쓸 것' 22%대에 정체해 있어, 국내여행의 '지출 축소'경향(p.17)과 다소 거리가 있음.
- TCI는 '더 쓸 것' 105, '비슷하게' 95, '덜 쓸 것' 98로 코로나 직전 동월보다 높은 수준임.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해외 여행비 '더 쓸 것'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1,000명)

SQ1-4. 해외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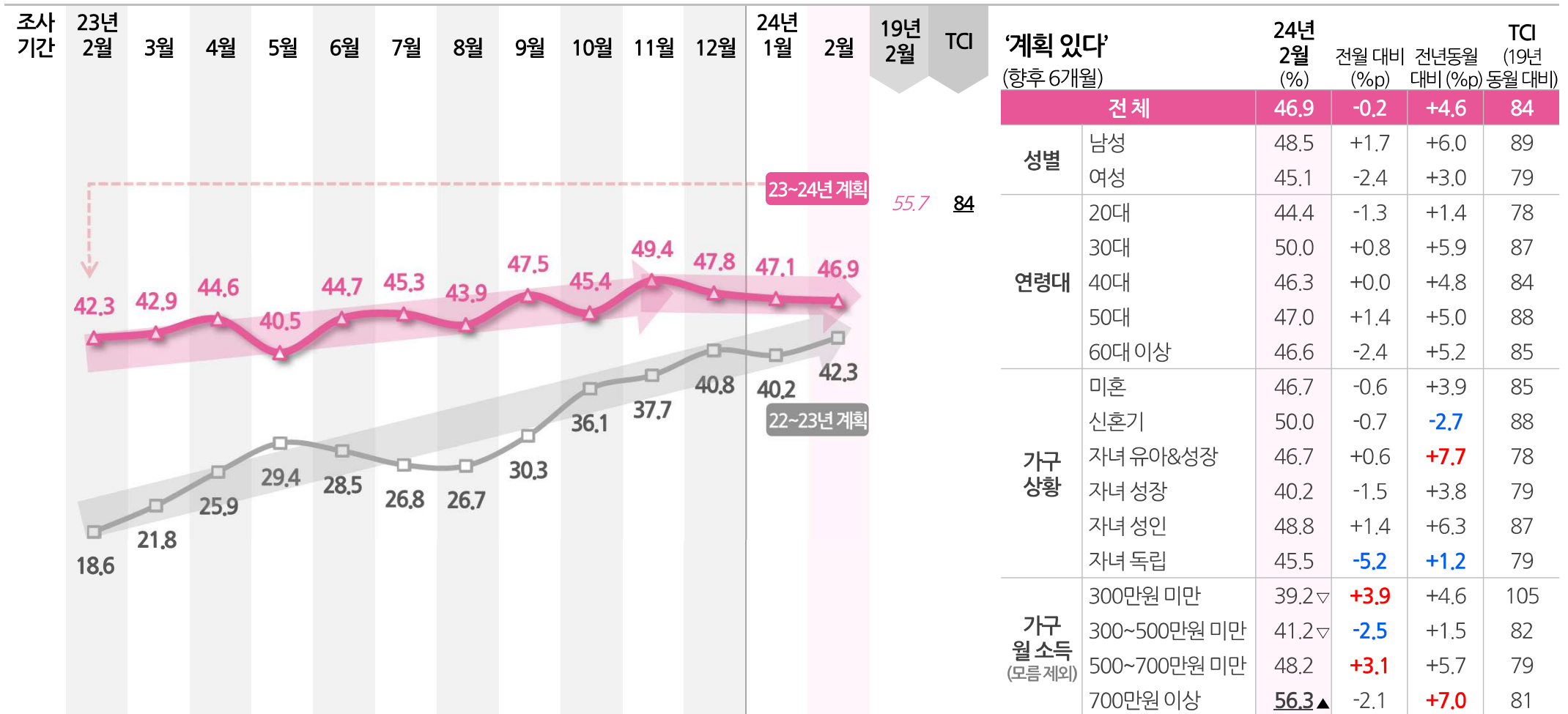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위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해외여행 계획률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계획률은 46.9%로 '23년 11월 고점(49.4%) 이후 3개월 연속 소폭 감소세로 '23년 2월 이후 꾸준한 증가 추이가 반전되고 있음을 보여줌.
- '19년 동월(55.7%)과 비교한 TCI 84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에서의 변화로 경제적 부담 증가와 '한풀이성 여행' 경험이 여행 의향을 낮춘 것으로 보임.
- 인구특성별로는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계획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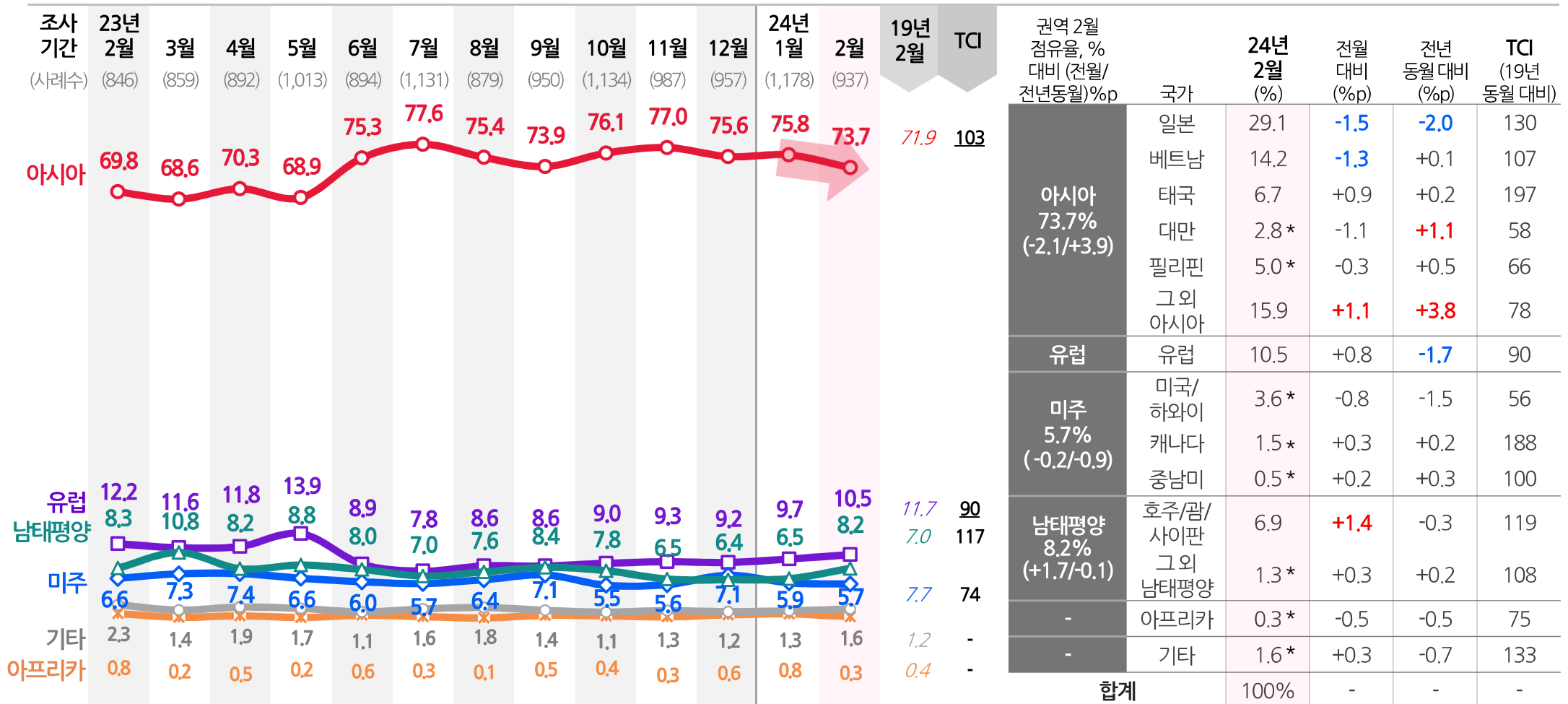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SQ4-1. 그렇다면, 향후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해외여행 예정 지역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예정 지역 점유율은 '아시아'가 73.7%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예정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아시아 다음으로 '유럽(10.5%)', '남태평양(8.2%)', '미주(5.7%)' 순임.
- '아시아' 내에서 '일본(29.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베트남(14.2%)', '태국(6.7%)', '필리핀(5.0%)' 순임.
- TCI는 '아시아'와 '남태평양'이 각각 103과 117로 '19년 대비 증가한 반면, '유럽(90)', '미주(74)'의 여행 계획은 감소함.

[단위: %]



B2-1.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B2-2.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시기에 여행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해외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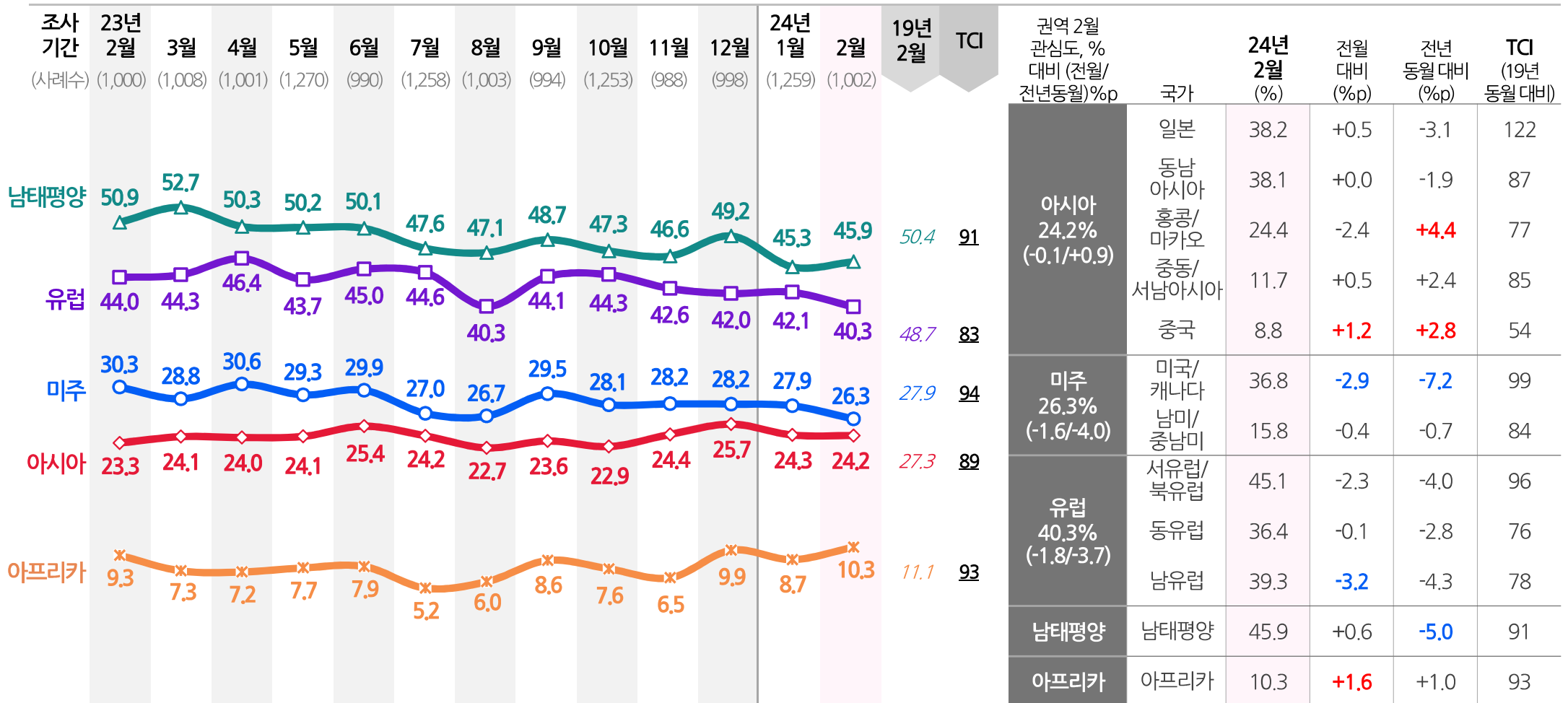
* 5% 이하 해석에 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

-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 ,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남태평양(45.9%)', '유럽(40.3%)', '미주(26.3%)' 순임. 실제 여행 가능성 보다는 희망사항 성격이 강함.
- '아프리카(10.3%)'의 관심도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두 자리 수로 최근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함.
- TCI는 모든 권역에서 100 이하로 코로나 이전 동월보다 낮으며, 그 중 '유럽'이 83으로 가장 낮음.
- 국가별 TCI는 '일본(122)'이 유일하게 100을 넘어, 최근의 일본 열풍이 계속 될 것임을 암시함.

[단위 : Top2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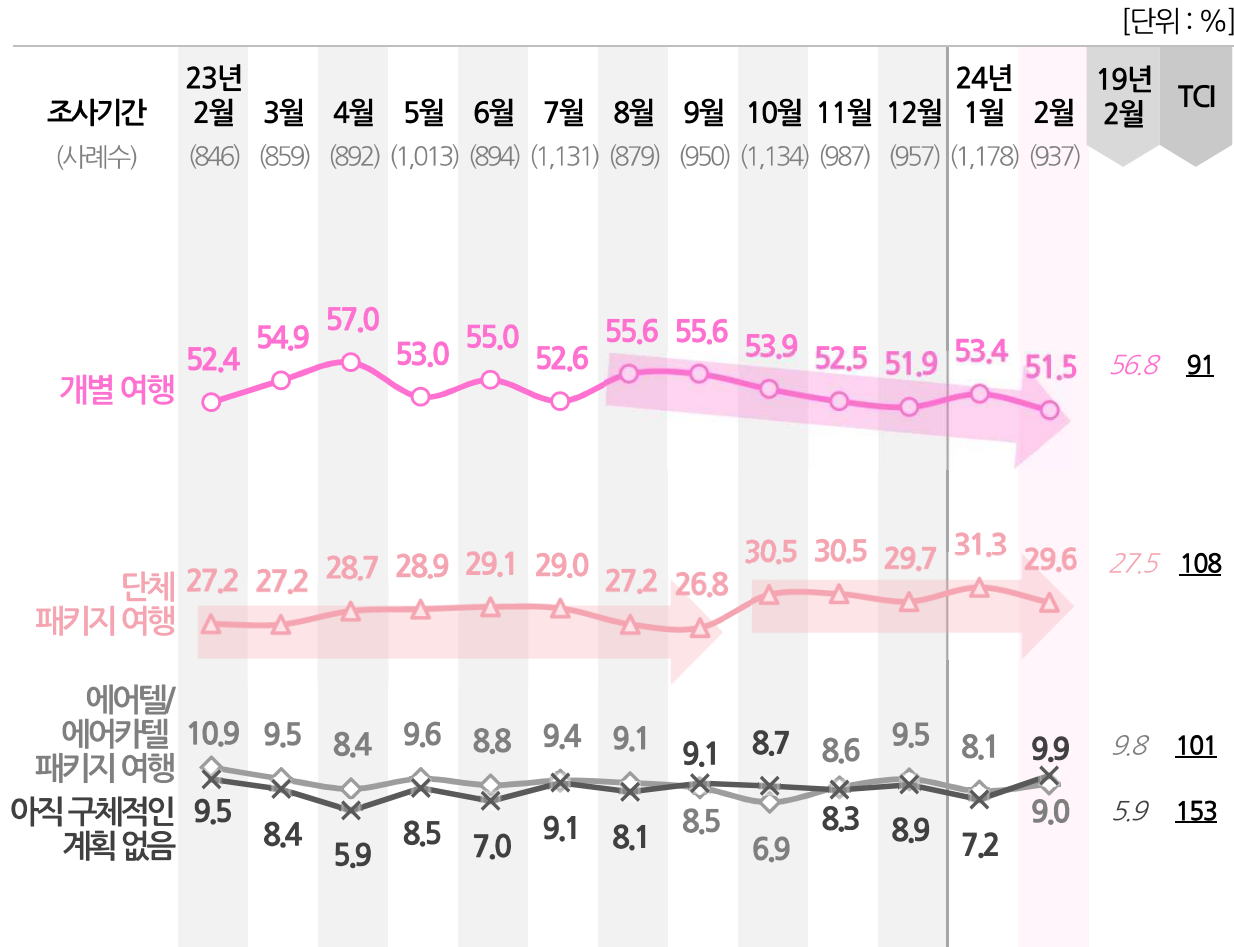


SQ3-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5점 척도)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지역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5. 선호 해외여행 형태 (향후 6개월)

- 선호하는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 여행(FIT)(51.5%)', '단체 패키지(29.6%)' 순임.
- '개별 여행'은 '23년 9월부터 다소 하락하여 TCI 91 수준이 되었고, '단체 패키지'는 23년 10월 30%대로 올라온 후 TCI 108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선호 여행 형태가 '개별 여행'의 감소, '단체 패키지' 증가의 경향이 보임.



▶ 여행지역별 선호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937)	(691)	(53)	(98)	(77)	(3)
개별 여행	51.5	<u>54.1</u> ▲	60.4	42.8	39.1▼	33.4
단체 패키지 여행	29.6	27.4▼	28.4	<u>39.8</u> ▲	33.8	66.6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9.0	8.4	5.6	9.2	<u>16.8</u> ▲	0.0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음	9.9	10.1	5.7	8.2	10.4	0.0

B8. 'OO' 여행은 어떤 형태로 갈 생각이신가요?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참고 자료



[참고] 코로나와 여행 환경 이슈

[참고] 코로나와 여행 환경 변화

*C 코로나19 관련 이슈, T 여행 관련 이슈 38/40

2020년	02월	C 국내 집단 감염 발생 및 대규모 유행 등으로 전국 확산 T 특별입국절차(코로나19 국외 유입 및 확산 방지 목적 국내 입국 내외국인 검역 시행 절차) 시행 T 일부 국가(이스라엘, 요르단 등) 한국인 입국금지 실시
	03월	C 코로나19 관련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2020.03 ~ 2022.04, 상황별/단계적 실시) T 해외 대부분 국가·지역 한국발 입국금지
	12월	C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강화(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발효) T 5개 항공사 국제선 운항중단(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2021년	02월	C 국내 백신 접종 시작
	11월	C 위드코로나(방역 완화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12월	C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환자 발생 및 확진자 급증 C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강화(사적 모임 제한 4명으로 축소)
2022년	01월	T 트래블버블(코로나19 감염 안전 평가 국가에 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제도) 국가 확대
	03월	C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확대) T 해외입국 자가격리 의무 면제
	04월	C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05월	C 해외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10월	T 국내 입국자 PCR검사 의무 해제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수 제한 해제
	12월	T 정부, 내수활성화대책 100만명에 휴가비 600억 지원 발표
2023년	03월	C 정부, 코로나 엔데믹 선언 ; 6월부터 방역 규제 및 격리 의무 해제 C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하향(격리 5일 권고 전환)
	08월	C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전환 C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09월	T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 시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10월	T 여행이 있는 주말 (10.30~12.03) T 외교부, 이스라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12월	C WHO, 코로나 변이 'JN.1' 관심 변이로 지정
	12월	C 정부,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2024년	01월	C 정부,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02월	T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 캠페인 추진 (2.20~3.31)

2024년 2월

1주	02. 05 ~ 02. 11	설 연휴 (2.9~2.11)
		설날맞이M 드론라이트쇼 특별공연, 부산 광안리에서 개최 (2.10)
2주	02. 12 ~ 02. 18	2024 월드아트엑스포 및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 (2.15~18)
3주	02. 19 ~ 02. 25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 캠페인 추진 (2.20~3.31)
		정월대보름 맞이 축제 전국에서 개막(달집태우기, 달맞이, 연날리기 등)
4주	02. 26 ~ 03. 03	삼일절 (3. 1)
		2024 K리그1 개최 (3.1~)
		경주시, '2024 피니클 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콘퍼런스' 베스트 세계유산도시와 축제 부문 대상

2024년 1월

1주	01. 01 ~ 01. 07	신정(2024년 1월 1일)
		정부,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2주	01. 08 ~ 01. 14	한국은행,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
		2024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개막 (1.11~2.29)
3주	01. 15 ~ 01. 21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4주	01. 22 ~ 01. 28	전국, 북극발 한파
		강원 눈 축제 개막 (대관령 눈꽃축제, 태백산 눈축제 등)
		도쿄 인근 4.8지진 발생
5주	01. 29 ~ 02. 04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1 시작~소진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 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주시, 여주시, 성주군' 선정

컨슈머인사이트 여행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여행/문화/스포츠 관련 이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r_issue

Thank You